

Happy Independence Day!

캔사스 시티 코리안 저널
KANSAS CITY
KOREAN JOURNAL

KC
KJ

07월
2019
JULY



K~ 12th, 미대입시, 성인취미반 모집

'2019 SUMMER ART CAMP' 여름미술특강

(July 1-31) 4주 단기미술특강반 모집

상담문의 816-646-1376/카툰문의환영
(부재시) 504-481-9195
artcenterkc@gmail.com



한약 | 한방전문

Lohan Chiropractor & Acupuncture

404 E. Bannister Rd, Ste B. Kansas City, MO 64131

816 - 444 - 1218

www.lohanchiro.com | facebook.com/lohanter

각종보험적용, 상담환영 | 교통사고 | 양방협진

정기칼럼 - 신문 참고 | 매월 이벤트 - 로한광고지 참고



한의학 박사
Dr. Kim [ilhyung Kim]
Ph.D., M.S., L.Ac., Dipl O.M.

Inside the Issue 이달의 지역기사

6.25 참전용사들을 위한 감사
의 오찬행사 개최
PG. 6

제1회 캔사스한인족구대회
개최
PG. 7

캔사스장으로 성가단과 선교교회
함창단 NATIONAL FLAG DAY
6.25 참전용사 기념행사 참석
PG. 8

한국학교 40년을 여러분의 이
야기로 채워 주세요
PG. 8-9

캔사스 체육회와 선수단 제20
회 시애틀 미주한인 체육대회
참가 PG. 24

KANSAS CITY
KOREAN JOURNAL

JULY 2019
VOL #57 \$3.95

Breaking news online
kckoreanjournal.com

Find us on
Facebook

/ kckoreanjournal



Dr. Kyunghwan An

Adjustments 교정, Acupuncture 침
Adjustments & Acupuncture
척추교정 & 침

Unlimited Chiropractic Care

Grandview Chiropractic & Acupuncture Clinic
12121 Blue Ridge Blvd., Suite A, Grandview, MO 64030
Phone number: 816-217-0020

platinum realty

BizPro

김준수 세무 회계 부동산

세무 회계 부동산 종합 관리 시스템으로 고객님의
비즈니스와 재산 관리를 한층 업그레이드 해 드립니다.

JUNSU KIM, CPA, EA, MSA, REALTOR

10322 METCALF AVE, OVERLAND PARK, KS 66212
T.913-383-8558 / F.913-815-8810 / INFO@BIZPROKC.COM



KANSAS ACUPUNTURE & CHIROPRACTIC CLINIC

7050 W 105th St. Overland Park, Kansas 66212



Dr. Taejeon Shin
D.C., M.S., L.Ac, Dipl O.M.

P) 913-649-2044
F) 913-649-2064
www.kacclinic.com
kacclinic@gmail.com



INSURANCE AGENT 보험 전문인

이 리사 (Lisa Lee Moran)

913-217-5169

Lisa@AutoHomeKC.Com

자동차, 주택, 사업, 생명, 메디케어 플랜

AUTO. HOME.BUSINESS. LIFE

MEDICARE HEALTH PLAN

7180 W 107TH ST., #10, OVERLAND PARK, KS 66212

로한 척추신경 & 침술클리닉

아름다운 중심을 잡습니다



교통사고

운동상해

디스크 질환

어깨질환

임산부 교정

메디컬 마사지

디지털 X-ray

상담해드립니다.

- ✓ 학생 보험 및 각종 보험
- ✓ 무보험자 할인 혜택
- ✓ 교통사고와 직장에서의 사고는 환자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하지 않도록 도와드립니다

#LohanChiro

교통사고 대처요령

- 1 사고 후 통증 발생 시, 911전화
- 2 상대방 운전자의 자동차 보험 카드 (이름, Policy#, 자동차 Year, Make, Model) 운전 면허증, 자동차 번호판의 정보를 확보
- 3 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으로 사고가 어떻게 발생되었는지 알 수 있게 현장 촬영 (전체 환경을 다 포함한 사진- 신호체계, 몇 차선 도로, 스탑 사인 여부, 차량 번호판)
- 4 상대방이 전적으로 과실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전화주시면 정확한 상담을 해드립니다.

교통사고 시 차량 제공



Lohan Clinic
South KC Office
816-444-1218 ext.1



Lohan Clinic
South KC Office
816-444-1218 ext.1



Lohan TEM
한방 클리닉
816-444-1218 ext.4



Lohan Clinic
Skin & Massage
816-444-1218 ext.3



자매 병원
Grandview Clinic
816-217-0020

404 E. Bannister Rd. Suite C Kansas City, MO 64131



로한 스킨 클리닉

f #LohanSkin

동안 관리

여드름 관리

얼굴 경락

미백 관리

리프팅 | 탄력

노화 방지

얼굴 경락은 막힌 피부를 풀어 괴사된 세포 및 유해한 독소 등이 림프에 의해 체외로 배출되면서 피부에 산소포화도가 높아져 혈기가 좋아지게 합니다.



Jet Clear는 강력한 압력을 이용해 직접적으로 피부와 두피에 물 입자를 분사해 피부 부위를 세정하거나 영양 물질 화장수를 도포하여 모공청소, 각질제거, 미백, 여드름, 그리고 턱선과 눈가에 주름개선 및 탄력에 효과적이며 얼굴에 축적되어있는 유해한 독소를 제거해주는 최신장비입니다.

✓ **바디** 전신마사지 서비스도 있습니다.



www.lohanski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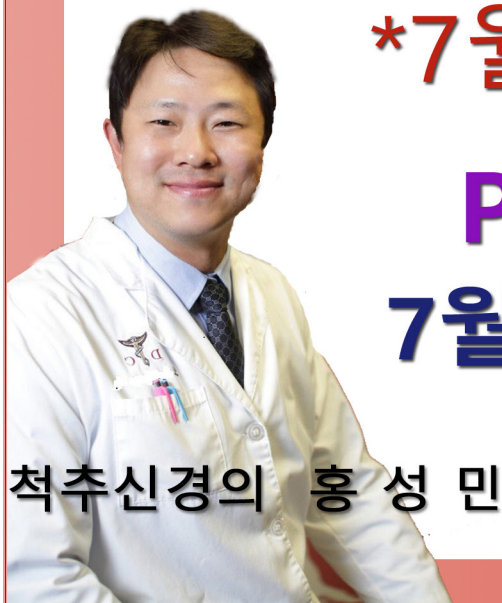
양/한방 협력 진료 Free Clinic

*NEW PATIENT ONLY

***7월 11일 목요일 무료진료!!**

Parents' Day EVENT
7월동안 한약 50% Discount

816-444-1218



척추신경의 홍성민



한의사 김일형

◆ 목차 / READER'S GUIDE

◆ 커뮤니티 / COMMUNITY	PG 6-9	◆ 세계 뉴스 / WORLD NEWS	PG 14-19
◆ 캔사스 소식 / LOCAL NEWS	PG 10-11	◆ 경제 / ECONOMY	PG 22-23
◆ WELLNESS	PG 12-13	◆ 스포츠 / SPORTS	PG 24-25
◆ 디렉토리 / DIRECTORY	PG 16-17	◆ 문화 와 생활 / LIFESTYLE	PG 26-27
◆ 사업 / BUSINESS	PG 20-21	◆ 믿음 / FAITH	PG 28-29
		◆ 무료 광고 / CLASSIFIEDS	PG 30-31

◆ 일반 및 광고 연락처 / GENERAL AND ADVERTISING CONTACT

Email: kim@kckoreanjournal.com Phone: 913-802-2005
ONE.FIVE Media LLC : Kansas City Korean Journal

(여러분의 광고를 소중히 여깁니다. 캔사스의 유일한 한인신문 KCKJ로 연락주세요. 한인특별가로 모십니다!)

편집자 주 / EDITOR'S NOTE

- 모든 칼럼의 영어 또는 한국어 번역본은 요약본이며, 외부필자의 원고는 신문사 편집방향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All translations of the columns are done in summary form. The opinions, beliefs, and viewpoints expressed by the contributing writers may not reflect the opinions, beliefs, and viewpoints of KCKJ.
- Korean Translator and Editor: Chaeyoung Kang

-
- 캔사스시티 코리안 저널의 (연합 뉴스)로 표기된 모든 기사의 발신지와 저작권자는 연합뉴스이며, 무단전재나 재배포를 절대 금합니다.
 - 1. 연합 뉴스 - (기사발신지=연합뉴스)
 - 2. 저작권문구 <저작권자 (C) 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The source and copyright holder of all articles marked as Associated Press (AP) in Kansas City Korean Journal is AP News(AP), reprinting or distributing without permission is strongly prohibited.
 - 1. AP - (Article Source Reuters)
 - 2. The copyright notice <copyright (C) AP All Rights Reserved - Copyright by>
 - 마감일을 넘겨오는 기사나 광고는 부득이하게 다음호로 늦게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저희 신문의 수정 사항을 언제든지 알려주십시오. 여러분의 지적을 귀하게 받아 더욱 발전하는신문이 되고자 합니다.
- 보내실곳은 kim@kckoreanjournal.com 입니다. 감사합니다.
 If you find any information in error, please direct them to kim@kckoreanjournal.com Thank you.

KC CALENDAR OF EVENTS

July 1: 15TH ANNUAL HEARTLAND ART GUILD INTERNATIONAL MINIATURES ART SHOW: Recurring weekly Monday through Friday, July 1-August 2, 10 AM- 4 PM, Miami County Historical Museum 12 E Peoria St., Paola, KS 66071-1707

July 3: INDEPENDENCE DAY CELEBRATION: Sunset, Jesus Christ of Latter Day Saints Pageant Grounds & Mormon Visitor Center, 937 W Walnut St., Independence, MO 64051

July 5: 'THE MUSIC MAN' AT THEATRE IN THE PARK: July 5-July 13, From: 08:30 PM to 10:30 PM, Theatre in the Park, 7710 Renner Rd. Shawnee, KS 66217

July 6: KC Air Show: July 6 and July 7: All day, Charles B. Wheeler Downtown Airport: 900 Richards Rd, Kansas City, MO 64116 4th of July Weekend you can watch the Blue Angels & other air show participants show off their crazy stunts! Get tickets online.

July 6: FRANK MASON LLL SECOND ANNUAL CELEBRITY SOFTBALL GAME: Gates Open at 4PM, Home Run Derby at 5PM, Game Starts at 6PM T-Bone Stadium, 1800 Village West Pkwy, Kansas City, KS 66111

July 6: HOT IMPORT NIGHTS: 5PM- 11PM, Celebrating with Cars, Concert, Fireworks, & KC BBQ! Arrowhead Stadium, 1 Arrowhead Dr, Kansas City, MO 64129

July 12: UNION STATION SWING DANCE - USO STYLE: From: 8:00 PM to 10:30 PM, Union Station Kansas City

July 13: THE SESAME STREET ROAD TRIP: Starting: 10:00 AM, Frank A. Thesis Park, Oak and

47th Streets, across from the Nelson-Atkins Museum of Art, Kansas City, MO 64110

July 14: 2019 KC FRINGE FESTIVAL: July 14-July 28, See website for details Fringe 411, Union Station, 30 W Pershing Rd., Kansas City, MO 64108

July 17: THE CARNIVAL AND AMELIA EARHART FESTIVAL: July 17-July 20, From: 08:00 AM to 09:00 PM, Visit Atchison, aefestival@atchisonkansas.net: The Santa Fe Depot, 200 S 10th St, Atchison, KS 66002

July 19: SAVE A LIFE: CENTENIAL BLOOD DRIVE DONATION: From: 10:00 AM to 03:00 PM, National WWI Museum and Memorial, 2 Memorial Dr, Kansas City, MO 64108

July 21: MIAMI COUNTY FAIR & RODEO: July 21-July 28, From: 09:00 AM to 09:00 PM, Wallace Park, 401 E. Wallace Park Dr., Paola, KS 66071: miami_co.fair@yahoo.com

July 23: FC BAYERN MUNICH VS. AC MILAN: 8:00 PM - 11:00 PM, Arrowhead Stadium, 1 Arrowhead Dr, Kansas City, MO 64129

July 24: JAMMIN' ON THE GREEN WITH THE VINE STREET RUMBLE JAZZ ORCHESTRA: From: 05:30 PM to 07:00 PM, Shawnee Town 1929, 11501 W 57th St, Shawnee, KS 66203

July 27: THE WATER LANTERN FESTIVAL: Starting: 5:30 PM, Frank A. Theis Park, Oak and 47th Streets, across from the Nelson-Atkins Museum of Art, Kansas City, MO 64110

SUPER AGENT!

Serving Kansas
and Missouri

성심성의껏 모시겠습니다!!

Kay K Mun 문경환



913.251.7871 or 562.260.1119

Re/Max Best Associates

Broker Associate



Business 독점 Listing

Exclusive Listing:

- 1) Japanese Sushi Restaurant \$200K/ Gross: \$700K/yr
- 2) Beauty supply store Sale/Lease 5000Sq Ft.
excellent location and visibility next to Family Dollar Store
- 3) Beauty Supply for sale \$205K / Gross \$540K /
Net10K Potential 13K/Mo.

Homes



- 1) Leawood, KS Price: \$419900
4Beds/2 full+2(1/2)baths
Leawood South Colonial home on
beautiful treed corner lot with golf
course views all around! Must See!!



- 2) South Kansas City: \$799K
8Beds/6 Baths. Country tranquility with
Lake View all around, Secluded 7 acre tract
and 7000+ sq ft custom built home
Separate living quarters on 3 different levels
for expanded family living.
Bring an offer!!



- 3) Overland Park: \$251K
4Beds/2.5Baths. Nestled in a quiet cul-de-sac
on 1/3 acre in this custom built home.
Has new roof and paint 2016

LOHAN
chiropractic + acupuncture
HEALING CENTERS

+ B | K L A S S Y
BARBER STUDIO



남성 전용 미용실

EXPERIENCE A KLASZY SERVICE



15년 경력의 남성 전문 미용사



GERRY FLORES
MASTER BARBER



BJ FLORES
ACUPRESSURE FACIALS



VINH TRAN
JUNIOR BARBER

전화/문자 예약

816.835.0049

524 WALNUT ST SUITE 230 KCMO 64106



6.25 참전용사들을 위한 감사의 오찬행사 개최

캔사스시티 한인회 (회장 안경호)에서는 6월 25일 '6.25전쟁 69주년 행사'로 캔사스와 미주리주의 6.25 참전용사들과 가족 50여명을 모시고 Cinzetti's 이탈리아 레스토랑에서 감사의 오찬행사를 가졌다.

안경호 한인회장은 인사말에서 한반도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전쟁인 6.25 전쟁에서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을 지켜낸 참전용사들의 헌신과 희생에 감사를 표했다.



참석한 참전 용사 중 한 분은 6.25 당시 찍었던 본인의 사진을 보여 주기도 하였고 또 다른 참전용사는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한국전 관련 사진들을 보여 주며 6.25 전쟁을 잊을 수 없다고 하였다.

색 바랜 사진 속에는, 지구 반 바퀴를 돌아 전쟁이 펼쳐지고 있는 낯선 이국 땅에서 찍은 할아버지의 젊은 시절의 모습이 찍혀 있었다. 사진을 보다 고개를 들어보니 눈썹까지 하얗게 되시고 얼굴 가득 깊이 주름이 생기신 나이 드신 미국 할아버지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떨어져 목숨을 걸고 6.25 전쟁에 참전하여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과 더불어 나이 드신 참전용사의 현재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파왔다.



몸과 마음을 바쳐 대한민국을 지켜낸 6.25 참전용사들은 세월이 흐른 탓에 몇몇분들은 지팡이에 몸을 의지하였고 걸음도 느려 지셨으나, 경건하게 한국전 참전용사 모자를 쓰고, 제복을 입고 오찬 행사에 참석을 해서 자리를 빛내 주셨다.

요즘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들에게 6.25는 과거 역사에 남은 시간으로 점점 잊혀져 가고 있지만 6.25 참전용사들은 지금도 생생하게 6.25를 기억하고 있었다.

이번 오찬행사에 참석해 주신 6.25 참전용사들은 서로 안부도 물으며, 즐겁게 담소를 하시며 맛있게 오찬을 즐겼다. 캔사스시티 한인회에서는 6.25 참전용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작은 선물도 준비하였고, 오찬행사가 끝나고 선물을 증정하는 시간도 가졌다.

(기사/사진: 캔사스시티 한인회 보도위원 안향미)

캔사스시티 한인회 웹사이트 안내: www.kckorean.net

캔사스시티 한인회 Facebook 웹사이트 안내: www.facebook.com/kasofgkc



제1회 캔사스한 인족구대회 개최

지난 6월 8일 토요일 오전 10시 캔사스체육협회에서 개최한 족구 대회가 South Kansas City, Minor Park 테니스 코트에서 열렸다. 총 여섯 팀이 참가했고, 참가팀들이 모두 한 번씩 경기하는 리그제 방식을 택하여 진행하였다. 먼저 여섯 팀이 김대중 체육회 회장의 사회로 국민 의례를 하고, 사고 방지 및 경기 규칙에 대한 간단한 교육을 받은 후 시합을 시작하였다. 참가한 선수들은 꽤 더운 날씨와 내리쬐는 햇빛 아래서 공을 차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각 팀들은 서로 단합된 모습으로 정정당당하게 기량을 겨루었다. 특별히 이번 대회에는 척추신경 의사들로 구성된 로한병원팀과 센트럴신학교의 교

수 및 학생들의 팀이 처음 참가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특히 이 동창원장을 중심으로 한 로한병원팀은 척추신경 의사들이 건강한 신체와 단련된 체력을 위해 이번 경기에 참가하게 되었다고 참가 계기를 밝히며 우승을 향한 의지를 불태웠다. 그 밖에도 캔사스 선교교회와 안디옥교회 및 IHOP 교회 그리고 KC축구팀이 참가하여 기량을 빛내주었다. 이날 경기는 강남식당과 동양마켓에서 점心和 상품으로 후원하였고 문경환 상공회회장도 상품으로 대회를 후원하였다. 또한 로한병원에서 김일형한의사가, 이 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의 안전을 위해 또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부상에 대비하여 의료 봉사도 수고하였다. 경기 결과는 이번 대회 처음 출전한 센트럴신학교 팀이 5승 전승을 거두며 우승을 차지했다. 그리고 의사들의 패기를 보여준 로한병원

팀이 4승1패를 기록하며 준우승을 거두었고, IHOP교회가 3승 2패로 3위를 차지하며 대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족구 대회의 경기를 통해 족구를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족구에 더 깊은 애정을 갖게 되었고 많은 분들이 족구 동호회에 참가를 희망하게 되었다. 김대중 체육회회장과 문경환 상공회회장은, 한인들의 친목 도모와 건강 단련을 위해 매주 일요일 저녁 6시 반, Minor Park에서 갖고 있는 족구 연습경기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우승 내역)

1. 우승: 센츨릴 신학대학
2. 준우승: 로한병원
- 3등: 아이합교회





캔사스장로 성가단과선교교회 합창단 NATIONAL FLAG DAY 6.25 참전용사 기념행사 참석

지난 6월 14일 크라운센터 앞 Washington Square Park에서 6.25 참전 용사들 (Missouri Korean War Veterans Memorial)을 모시고 National Flag Day 기념행사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비가 오고 흐린 날씨였음에도 많은 분들이 참석하며 자리를 함께하여 주었다. 특히, 미국 군악대의 반주에 맞추어 캔사스 장로 성가단과 선교교회 합창단 (지휘: 이승원 박사), 그리고 일부 연합 성가단 단원들이 모여 애국가, 아리랑, 미국국가를 부르며 6.25 참전 용사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행사를 함께 하였다.



이번 2019년도 National Flag Day 행사에서는 6.25 사변 당시 쓰던 미국 성조기 (별 47개)를 소각하는 특별 행사가 진행되었다. 모두가 엄숙하게 지켜보는 가운데 1950년대에 사용했던 미국 성조기를 소각하였다.

이어진 순서로, 김철희 장로 (91세)에게 참전용사 모자를 증정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철희 장로는 6.25 사변 때 육군 소위로 임관되어 전쟁에 참여하였고, 주일 대사관 참사관으로 근무하였다. 이번 National Flag Day에서는 김철희 장로의 공로를 인정하며 참전용사 모자를 증정하였다. 김철희 장로가 참전용사 모자를 쓰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이 뜨거운 박수로 함께 감사와 축하의 마음을 전하였다. 이날 행사의 Keynote Speaker는 KFKF 프로그램 디렉터인 Dale Carter였다.



(기사: 안향미/사진: 캔사스 장로 성가단 제공)

한국학교 40년을 여러분의 이야기로 채워 주세요

캔사스시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캔사스시 한국학교에서 인사드립니다.

캔사스시 한국학교는 캔사스 시의 유일한 한글교육기관으로써 우리 자녀는 물론 외국인들에게도 과학적이고 창조적인 한글과 세계 속의 한국문화와 역사를 가르치는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캔사스시 한국학교가 내년 2020년에 40주년을 맞이합니다. 고 배영(전 UMKC 교수) 박사님께서 한글교육의 산실 역할을 하시고, 1980년 고 이생희 이사장님과 뜻을 같이하신 분들이 한 마음이 되어 비영리 단체 “캔사스시 한국학교(The Korean Institute of Greater Kansas City)”를 설립, 1980년 2월에 첫 개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한국학교는 40살의 든직한 성인이 되었습니다. 40년전 장난꾸러기 학생들이었던 그들이 이제는 부모가 되어 자녀들을 다시 한국학교에 보내는 이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또 다른 미래의 40년을 위하여 도약할 자랑스러운 한국학교를 그려 봅니다. 이 일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캔사스시 한국학교 교장 선생님과 모든 선생님들의 수고와 사명감에 감사드리며, 캔사스시 한국학교에서는 40주년 기념 책자의 발간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캔사스시 한국학교 40주년 기념 책자를 구상해 보면서 “나의 사랑 한국학교”라는 주제로 여러분의 글을 모아서 함께 펴내려고 합니다. 캔사스시 한국학교와 관련하여 특별한 추억, 보람있고 기뻐했던 순간들, 재미있던 일화 등에 대한 수필이나 사진들을 모아 자유로운 형식으로 글을 적어 주시면 저희가 함께 편집해서 모든 분들과 함께 풍성한 한국학교의 내용들을 나눌 수 있도록 엮어드리려고 합니다.

앞으로 40개의 징검다리를 여러분과 같이 하나씩 건너면서 코리안 저널 지면을 통해서 기념책자가 만들어지는 과정들을 나누길 원하니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초창기 어르신들께서 갖고 계신 사진들을 보내주시면 저희에게는 소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캔사스시 한국학교 졸업생, 선생님들과 보조교사들, 후원회원과 이사님들, 학부모님들 한분 한분이 바로 캔사스시 한국학교 40년의 주인공이며, 여러분의 이야기가 우리가 이 책을 통해 그려보고자 하는 마흔살 한국학교의 얼굴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사랑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캔사스는 물론 미국 안에 우뚝 서는 캔사스시 한국학교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캔사스시 한국학교 드림

여러분들의 소중한 글과 사진들은 ‘캔사스시 한국학교 40년사 편집위원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명재 이사장: 816-672-9195, myongjai.lee@gmail.com/ 윤부성: 816-398-5547, hannahkwon620@gmail.com

한인회 도네이션 명단	
안경호	\$15,000.00
재외동포재단	\$5,000.00
Asian-American Chamber of Commerce	\$1,500.00
Assi	\$1,100.00
초가	\$1,000.00
Indian creek shopping center	\$1,000.00
왕희철	\$960.00
안성호	\$835.00
상록회	\$500.00
Viva fashion	\$500.00
고 박세연 회장 가족	\$500.00
김성배	\$500.00
장영준	\$500.00
문현자	\$450.00
배규태	\$440.00
김봉식	\$300.00
김호원	\$300.00
서현진	\$300.00
송세준	\$300.00
베델 장로 교회	\$200.00
제일 장로 교회	\$200.00
박병관	\$200.00
Scott An	\$200.00
Thomas Lee	\$200.00
양영승	\$200.00
이옥순	\$200.00
김금규	\$200.00
김호찬	\$200.00
임마누엘 감리 교회	\$150.00
이주현	\$150.00
정기호	\$110.00
독고영식	\$100.00
이경남	\$100.00
김광록	\$100.00
김추윤	\$100.00
김준배	\$100.00
정영로	\$100.00
이주찬	\$100.00
김진홍	\$100.00
손경숙	\$100.00
박병관	\$100.00
조영하	\$100.00
박용운,정보영	\$100.00
LG	Headset, 전화기, TV
중부시장	압력밥솥 2개

\$100 이하 도네이션 명단	
총 금액:	\$657.00
유감무, 나눔의 교회, 김정원 은영영, 최병연, 천우선&전창호, 윤정재, 모인환, 권충호, 무명(\$53.00)	
도네이션 TOTAL:	\$35,052.00

회비는 가족당 \$20.00
독신은 \$10.00
도네이션을 \$100 이상 하신 분은 자동으로 한인회비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한인회비 보내실 곳 10409 Marty Ave, Overland Park, KS 66212

한인회 회비 내신 분들 명단			
Chung Yun	김준	송세준	이주찬 원영희
J Kim	김준배	송진희	이향경
John Doawson	김준수	신혜승	이호순
Scott Ahn	김진홍	안경호	임명찬
Thomas Lee	김추윤	안성호	임소연
강미영	김한석	안승민	임은정
권수연	김현영	안승철	장린옥
권충호	김호원 김중자	안진성	장영준
김경민	김호찬	안향미	전인성
김광록	데니스조 이주현	양혜연	정기호 김세윤
김광용 황인숙	독고영식 박인숙	양봉래	정영로 천옥희
김권	모인환	양영승	정원화
김금규	문경화	오명순	정재호
김다위	문현자	오승현	정지훈
김대중	박귀우	왕희철	정진미
김도준	박병관	유갑무	정태경
김병철	박선희	유명재	정판조
김봉식 노현이	박성창 박수미	유혜란	조영애
김상아	박순현 박상희	윤정재	조영하
김상용	박영자	윤태석	조은경
김석환	박용운 정보영	은영영	조정남
김성	박은지	이경남	조정숙
김성배	박진숙	이명재	주은은
김성일	방은숙	이승우	지형준
김소라	배규태 배화자	이승현	차미화
김수환	서지원	이아름	천우선
김시현	서현진	이영일	전창호
김정원	손경숙	이옥순	최병연

경험많은 셰프가
일식 전통과 튜진이 어우러진
코스 요리를 서브 합니다
예약 913.258.5879
단체예약 받습니다



주방에서 일하실분 구합니다



Lunch
Mon-Fri 11:30-2:30pm
Sat & Sun 12-3pm
Dinner
Mon-Thur 4:30-9pm,
Fri 4:30-10pm
Sat 3-10pm
Sun 3-9pm
Happy Hour
Mon-Fri 4:30-6pm
Sat & Sun: 3-5pm

Prairie Fire 5621 W. 135th St. Suite 2620
Overland Park, KS 66223
www.marusushikansas.com 913.258.5879

캔사스시티 한국학교

** 차세대 한국어 교육을 담당할 열정있는 선생님을 모집합니다.**

1.지원자격: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에 관심 있는 분

2.모집 인원: 0명

3.모집기간: 6/25/2019 ~ 7/25/2019 (*마감일 7월 25일, 기한엄수)

4. 제출 서류: 이력서 1통, 자기 소개서 1부

5.문의 : 캔사스시티 한국학교 교장 이명희

(전화) 816-469-8110, (이메일) leesaltkr73 @gmail.com

#관심있는 선생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Learn Korean with Your Child(ren)!



When: August 5th-9th, 2019 from 5 pm to 7 pm

Where: 8841 Glenwood St. Overland Park, KS 66212

Contact us at june.cho@gmail.com

Designed by pngtree

Event Detail: Do you want to help your children's learning? Do you want to watch Korean Drama? Please join us for 5 days to learn very basic alphabet of Korean. It is more fun when you learn with your child(ren). Help them to learn as you do, too.

USDA PLAN TO MOVE OFFICES SPARKS CONCERNS ABOUT RE-SEARCH

By JOHN HANNA AP Political Writer

TOPEKA, Kan.

The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announced Thursday that it will relocate two research agencies' headquarters to the Kansas City area, delighting Kansas and Missouri officials but intensifying critics' fears that research will suffer and be less accessible to federal policymakers.

Agriculture Secretary Sonny Perdue said that moving most employees out of Washington will bring the Economic Research Service and National Institute of Food and Agriculture closer to farmers and agribusinesses they serve. He also said the USDA would save about \$20 million a year on rent and other employee costs, freeing up extra dollars for research. Members of the Kansas and Missouri congressional delegations and the two states' governors praised the USDA's move, saying the research agencies are a good fit for their region. The USDA said nearly 550 of the roughly 640 jobs will move, and U.S. Rep. Emanuel Cleaver, a Missouri Democrat, said they will pay between \$80,000 and \$100,000 a year.

But critics said the research agencies have lost veteran employees and been unable to fill vacancies since the USDA announced last year it was considering moving their headquarters. Opponents also argued that moving them will make it harder for federal policymakers to get objective research that might raise ques-

tions about President Donald Trump's policies.

"This is a blatant attack on science and will especially hurt farmers, ranchers and eaters at a particularly vulnerable time," said Mike Lavender, a senior manager for the scientist group's Food and Environment Program.

The Economic Research Service examines a wide range of issues, including the rural economy, international trade, food safety and programs that provide food assistance to poor Americans. The National Institute of Food and Agriculture provides grants for agricultural research.

Perdue said the two agencies are the only parts of the USDA with no presence outside the greater Washington area, and 90 percent of the department's employees live outside that region. He also said the agencies will be able to draw future staff from a large "agriculture talent pool" in the Midwest.

The agriculture secretary told reporters on a conference call that the USDA doesn't yet know how many employees will move to Kansas City but the plan is not "an operation to leave anybody behind." He said the goal is to have workers relocated by the end of September.

"Once people who choose to move can relocate to Kansas City, I think there would be more furor trying to move them back after three or four years," Perdue said. "We didn't



do this with disruption in mind. We did this for the benefit of the two agencies." Kansas State University and the University of Missouri's main campus are roughly a two hours' drive from the Kansas City metropolitan area. Also, the Kansas State campus is home to a billion-dollar federal biosecurity research lab that's under construction.

Perdue said state and local officials offered \$26 million in incentives, although he declined to provide details. The joint Kansas-Missouri bid beat out 135 others.

"It is always positive when our government can operate outside of Washington and closer to the people it serves," said Kansas Sen. Jerry Moran, a Republican.

The move drew strong criticism from two Democratic chairwomen of U.S. House Agriculture subcommittees, Marcia Fudge of Ohio and Stacey Plaskett of the Virgin Islands. They accused the USDA of rushing its decision and ignoring farmers, ranchers and

researchers opposed to it. Reporters present when Perdue spoke to employees from the two agencies Thursday tweeted or posted photos of them turning their backs on him.

The American Federation of Government Employees, which represents workers at the two research agencies, also denounced the plan. Employees at both recently unionized. J. David Cox Sr., the union's national president, said the move will make it harder for the USDA research agencies to coordinate with other science and research agencies. "We will continue to work with Congress and other parties to fight this wrongheaded proposal, which is little more than a backdoor way to slash the workforce and silence the parts of the agencies' research that the administration views as inconvenient," Cox said in a statement.

Associated Press Writers Roxana Hegeman in Wichita, Kansas, and Scott McPetridge, in Des Moines, Iowa, contributed.

제74회 광복절 기념 소프트볼 대회



대회 날짜: 2019년 8월 10일 (토요일) 오전 9시

대회 장소: Heritage Park Softball Complex
(16050 Pflumm Rd. Olathe, KS 66062)

대표자회의: 8월 4일 (일요일) 오후 3시 (동양마켓 옆 카페뉴)

참가 신청: 안경호 (913-486-5836), 김대중 (913-205-0232)

참가비 \$250 (8월 4일 이후 접수시 \$275)

주최: 캔사스시티한인회 & 캔사스체육회

INDEPENDENCE DAY CELEBRATIONS

WESTWOOD FIREWORKS DISPLAY

St. Agnes Athletic Field: 5130 Mission Rd. Roeland Park, KS
Wednesday, July 3rd at dusk. Grab your lawn chairs and blankets to enjoy the fireworks in comfort! Parking is limited, so you are encouraged to walk.

PARKVILLE 4TH OF JULY CELEBRATION

English Landing Park: 100 Main Street Parkville, MO. Wednesday, July 3rd 6pm-10pm. Thursday July 4th 11am- 10pm. July 6th from 10 am to 10 pm. The Parkville Carnival will open Wednesday at 6:00 and remain open through Saturday evening. The celebration will include a parade from 10-11:30 am on Thursday, carnival rides and vendors and a fireworks display Thursday evening! The fireworks show starts at 9:45 pm at Grigsby Field.

LEAWOOD 4TH OF JULY CELEBRATION

Leawood City Park: 10601 Lee Blvd. Leawood, KS, Thursday, July 4th 6pm-9:30pm. Fireworks begin at 9:45 pm. There will be face painting, inflatables, & other activities for the kids to enjoy.

OP STAR SPANGLED SPECTACULAR

Corporate Woods Founders Park: 8717 W. 110th Street OP, KS. Thursday, July 4th from 5 to 10 pm. Enjoy food trucks and live music from the State Line Drive & Noe Palma from 6 to 8 pm. Then, the fireworks display begins around 9:45 pm. Parking will be at Corporate Woods.

STILWELL FIREWORKS & PARADE

Stilwell, KS, Thursday, July 4th. The fireworks begin at dark. You can park at the gas station to enjoy the light show.

GARDNER JULY 4TH CELEBRATION

Celebration Park: 32501 W 159th Street Gardner, KS. Thursday, July 4th from 3:30 to 10pm. There will be live entertainment, yummy food vendors, bounce houses, face painting, zip lines, and one of the city's best fireworks shows. Fireworks begin at 10 pm.

OLATHE 4TH OF JULY FIREWORKS SHOW

11031 S. Valley Pkwy Olathe, Kansas
Check out the annual fireworks display in Olathe, Kansas Thursday July 4th at 9:45 pm by the College Boulevard Activity center.

RED, WHITE, AND ZOO

Kansas City Zoo, 6800 Zoo Dr., KCMO 64132. In honor of our Independence Day, active and retired military individuals receive FREE admission to the KC Zoo on Thursday, July 4. Families of active and retired military individuals will receive \$1 off regular KC Zoo admission. Come enjoy special activities and 4th of July themed enrichment.

RIVERFEST 4TH OF JULY FESTIVAL

Richard L. Berkley Riverfront Park: 1298 Riverfront Dr. KCMO
Thursday, July 4th from 3 to 10 pm. Bring your lawn chairs for the big 4th of July party in KC. Tickets are \$5 and parking is \$10. Find tickets, directions and more on the Riverfest website.

FLAGS 4 FREEDOM CONCERT: Starting: 01:00 PM, Merriam Market Place, 5740 Merriam Dr., Merriam, KS 66203

COMMUNITY DAYS PARADE: Starting: 10:00 AM, City of Lenexa, Kansas, 17101 W 87th St. Pkwy. Lenexa, KS 66219

LENEXA FREEDOM RUN: Starting: 07:00 AM, Old Town Lenexa, Santa Fe Trail Drive & Pflumm Road

WORLDS OF FUN – CELEBRATE AMERICA

4545 Worlds of Fun Ave Kansas City, MO. Worlds of Fun will hold their Celebrate America event on Thursday July 4th! Enjoy a spectacular firework show accompanied with patriotic music. Plus, Military personnel get in FREE with their government ID!



Dr. Hong 의

뼈와 근육 이야기:회전근개

회전근개 질환 (Rotator cuff disorder -충돌증후군, 회전근개 파열)

여러 운동을 하는 가운데 가장 흔히 다치는 곳 중 하나가 바로 어깨이다. 어깨가 자주 다칠 수 밖에 없는 건 어깨가 거의 대부분의 상체 운동에 관여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어깨는 몸의 큰 관절 중 가장 움직임의 반경이 큰 관절이다. 사실상 거의 모든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범위를 Range of Motion (ROM)이라 하는데 ROM이 높은 관절일수록 안정성이 떨어지고 부상을 입기도 쉽다. 손목, 허리, 목 모두 마찬가지다. 정밀한 기계일수록 조금만 잘못 다루어도 망가지고, 기능이 많은 기계일수록 고장이 잘 나는 것과 비슷한 원리다.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면 단골 손님으로 등장하는 것이 회전근개, 즉 로테이터 커프(Rotator Cuff)이다. 회전근개를 대흉근이나 광배근처럼 특정한 근육이나 인대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많은데, 회전근개의 정의는 어깨 관절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네 개의 근육 무리 (견갑하근-극상근-극하근-소원근)와 거기에 연결된 결합조직을 말한다. 어깨 관절은 절구처럼 우묵한 소켓에 팔뼈의 둥근 요철이 박혀있는 모양이다. 어느 쪽으로든 움직일 수 있지만 잡아당기면 어느 쪽으로든 쏙 빠질 수 있는 구조이기도 하다. 그래서 어느 각도에서 하중이 가해져도 어깨가 빠지지 않고 제 위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잡아주는 근육과 인대가 촘촘히 감싸고 있는데, 네 개의 근육들이 각자의 방향에서 오는 하중을 책임지고 있다.

실제로 회전근개 질환은 성인의 어깨에 발생하는 만성 통증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회전근개의 문제 때문에 증상이 초래된 상태를 통칭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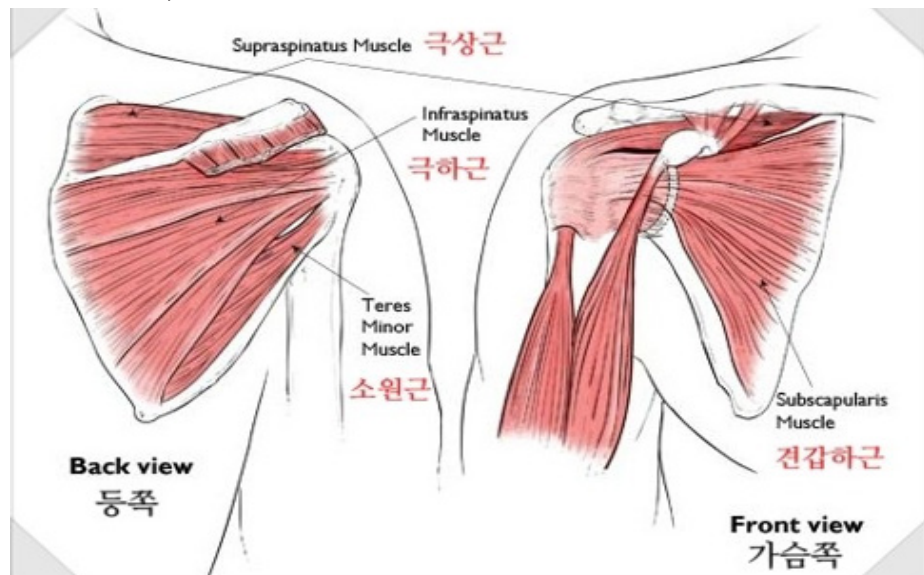
다. 회전근개는 어깨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네 개의 근육으로 형성되어 있는 해부학적 구조를 일컫는 말이다. 의학적 용어라 다소 생소하고 어색하기도 하지만 최근 들어 회전근개가 마스크를 통해 어느 정도 알려진 상태라 병원에 내원하는 환자 분들 중 이에 대해 문의하는 분들도 많아졌다.

회전근개 질환의 원인으로 흔히 열거되는 인자들은 외상, 퇴행성 변화, 선천적 이상 및 발육 부전, 불안정, 신경 기능 이상, 염증성 질환, 의인성 원인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다양한 원인들은 내재적 원인과 외재적 원인으로 대별되고, 내재적 원인으로는 회전근개 자체의 혈액 순환 저하가 가장 널리 거론되고 있으며, 외재적 원인으로는 충돌 현상이 가장 많이 알려져 있다. 충돌하면 떠오르는 것이 자동차 사고인데, 어깨 뼈에도 이와 비슷하게 어깨 관절을 움직일 때 뼈끼리 서로 부딪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주로 팔을 위로 들어 올리거나 앞뒤로 움직일 때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가장 흔한 증상은 어깨의 통증이며, 흔히 팔 위 쪽의 삼각근 부분에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등 부위나 목을 지나 머리에 까지 통증이 방사하기도 한다. 휴식중에서도 통증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흔히 팔을 들어 올릴 때 증상이 심해지는 양상을 보인다. 전형적으로 앉거나 서면 통증이 감소하고 누운 자세에서 통증이 심해지는 야간 통증의 양상을 보여 수면 장애를 호소하는 환자들이 많이 있다. 초기에는 관절 운동 제한이 뚜렷하지 않으나 관절 운동 제한이 나타나기도 하며, 특히 손을 뒤로 돌리는 자세에 제한이 두드러진다. 또한 일상 생활에서는 주차 티켓을 뽑기 위해 팔을 뻗을 때나 뒷좌석에 물건을 잡기 위해 팔을 뒤로 뻗을 때, 그리고 허릿춤이나 뒷주머니 쪽으로 손을 돌릴 때 등의 자세를 취할 때 통증이 나타나게 된다.

회전근개 질환의 치료는 환자의 나이, 직업, 필요한 기능 정도, 파열의 크기, 기능 저하의 정도, 손상 기전, 통증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게 된다. 파열을 동반하지 않은 회전근개 질환과 부분 파열은 비수술적 치료를 위주로 하며, 충실한 비수술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의 호전이 없거나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관절 내시경을 이용한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 따라서 정확한 진단과 그에 합당한 비수술적 치료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파열 혹은 증세의 잦은 재발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수술을 권유하기도 한다.

현대 직장인들은 자리에 앉은 시간이 많고 과도한 긴장과 업무 스트레스로 목과 어깨 등의 근육에 피로가 쌓이기 쉽다. 피로가 누적된 근육에 통증이 생길 경우 어깨를 포함한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 틈나는대로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좋다. 의자에 앉은 채로 스트



레칭을 실시하는 동작들은 별도의 공간이 필요하지 않으며, 10분도 되지 않는 시간에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어 책상 앞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생과 직장인들에게 유용하다.

회전근개 질환은 어깨에 무리를 주는 운동이나 충격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어깨 관절 운동으로 근육을 부드럽게 유지시켜 준다면 발병을 줄이는데 커다란 도움이 된다. 만일 회전근개 질환으로 의심되는 증상을 겪고 있다면 방치하지 말고 전문의와 정확한 진단하에 자신에게 맞는 치료를 상담을 통해 결정하고 실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Lohan Chiropractic and Acupuncture Clinic

척추 신경 전문의 홍성민

816-444-1218



20초간 유지



20초간 유지



교대로 10초간 유지



교대로 10초간 유지



교대로 10초간 유지



20초간 유지



교대로 10초간 유지



20초간 유지



교대로 5회씩 돌리기

학의학은 과학적인가 비과학적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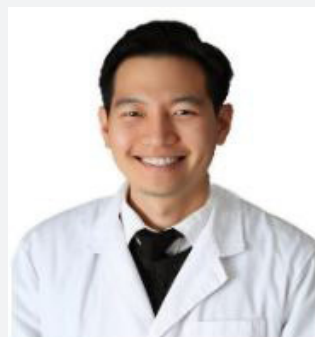
한의학은 수천년 간 한민족의 건강을 책임져 왔지만 아직도 비과학적이라는 오해를 종종 받고 있다. 한의학은 비과학적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이다. ‘과학’의 사전적 정의는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얻어진 지식의 체계’이다. 한의학은 우리나라 5000년 역사를 거쳐 검증된 고유의 의학이다. 한의학은 자연계의 변화가 인체의 생리 변화와 같다고 보는 사상과 질병이 발생하고 나서 치료하는 것보다 발생 전에 미리 다스리는 것을 중시하는 사상 등을 바탕으로 우리 몸을 치료하는 학문이다.

예를 들어, 배가 차서 설사를 자주하는 사람은 배를 따뜻하게 해주는 한약을 복용하거나 침·뜸 치료를 받기만 해도 증상이 완화되는 경우가 많다. 차가워서 생긴 문제를 따뜻하게 해줌으로써 해결한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이다. 현재도 한의학과 관련된 많은 연구가 진행 중이다. 이 같은 연구 덕분에 한의학의 많은 부분이 과학적으로 속속 증명되고 있다.

세계적 권위가 있는 저널인 국제학술지 ‘EXPLORE : The Jour-

nal of Science and Healing’에 ‘폐 전이가 있는 간암환자에 대한 한·양방 병용 치료 증례 논문’이 게재되는 등 한의학의 우수성이 점차 세계에 알려지고 있는 추세이다. 양방의학계에서 MRI 나 CT, X-ray 등을 사용하는 것처럼 한의학계에서도 기존의 진단방법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 시각적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에 존스홉킨스 대학의 동아시아 연구 프로그램(East Asian Studies Program)에서는 ‘만성 질환 및 상태’를 주제로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그 밖에도 하버드대, 예일대, 스탠포드대, 텍사스의 앤더슨 암 전문병원 등 세계의 주요 학교 및 학회, 병원에서는 이미 한의학에 깊은 관심을 갖고 더 나은 치료법을 개발하기 위해 오랫동안 연구를 해오고 있다. 로한 클리닉의 김일형 한의사는 메디컬닥터를 비롯하여 각계 여러 분야의 의사들과 AIMI 라는 학회를 만들어 환자의 기질과 체질, 생활방식에 최적화한 치료법을 끊임 없이 연구하고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그 동안 축적되어온 경험과 자료들을 바탕으로 삼아 어떤 환자든 과학적이며 전통적으로 설명하고 치료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



한 의사 김일형 Ph.D., M.A., L.Ac., Dip. OM
한의학전문 석사/박사 졸업

미주통합 한의전문 자격증 취득

AIMI 미주 및 글로벌 한의연구협회 임원

한국, 미국 주행한의학회/동의방약학회 회원

Lohan Chiropractic & Acupuncture
Clinic

816 - 444 - 1218

SUNKEN DANUBE TOUR BOAT IS RAISED IN HUNGARY AND SURVIVORS RECALL CHAOS AFTER BUDAPEST BOAT SINKING

선켄 다뉴브 유람선은 헝가리에서 인양, 한국인 생존자들의 회상

By HYUNG-JIN KIM and PABLO GORONDI

SEOUL, South Korea

A huge floating crane placed the Hableany (Mermaid) on a barge at Margit Bridge, the site of the tragedy in the Hungarian capital. Rescue crews raised a sunken tour boat out of the Danube River on Tuesday, shortly after four more bodies were recovered from the vessel involved in a collision with a river cruise ship nearly two weeks ago. Nineteen South Koreans and a Hungarian crewman have been confirmed dead, with eight people still listed as missing. Seven South Koreans were rescued after the nighttime collision May 29 amid heavy rain. Police spokesman Kristof Gal said the tour boat would be taken on the barge to nearby Csepel Island, where it will be examined by Budapest police as part of their investigation of the crash. He added that rescuers would also sift through the sediment deposited in the hull of the boat — which spent more than 12 full days underwater — in the search for more victims. The search for the missing victims would contin-

ue along the Hungarian section of the Danube River south of Budapest, Gal said. Efforts to search for the missing victims of the collision and to raise the Hableany have been hindered by the Danube's high spring-time water levels — which are expected to fall significantly over the coming days in Budapest — and the river's fast flow, as well as near-zero visibility underwater.

South Korean survivors of a tour boat which sank in Budapest say they barely managed to grab onto a drifting lifeboat while watching in horror as others around them struggled in the dark, rainy waters, shouting for help. Only seven of the 35 people on the boat, including 33 South Koreans, were rescued.

Survivors said the small sightseeing boat had almost finished an hour-long night tour of the Hungarian capital on Wednesday and was nearly at its stop when a larger cruise ship hit it under a bridge near the parliament building, a city landmark. They said about 20 people were on the deck taking



photographs or preparing to disembark. The others were in the cabin.

"I saw that big cruise ship coming closer to us but I never imagined it would ram our boat," said a 31-year-old South Korean surnamed Jeong. She was quoted by South Korea's Yonhap news agency.

Jeong said she and others on the deck were thrown into the cold Danube waters by the impact of the collision. Police said it took only seven seconds for the boat to overturn and sink. She said she saw a lifeboat drifting near her and managed to get hold of it. She threw a rope to another South Korean tourist surnamed Yoon, who was near her.

"Our boat was turned over in an instant and began sinking," Yoon, 32, told Yonhap. "All those on the deck fell into water and I think those staying in the cabin on the first floor probably couldn't get out of the ship swiftly."

While holding onto the life-

boat together, Jeong and Yoon said they shed tears when they saw the heads of other people coming up and down in the fast-moving river.

"The people had been plunged into the river in the darkness and shouted 'Help me!' while floundering in the waters. But I couldn't do anything for them," Jeong said, crying.

Another survivor surnamed Ahn, 60, said a crewmember of another sightseeing boat sailing nearby extended a hand to him after he was tossed into the river. But he lost his grip and was carried away by waters before he got hold of a drifting plastic object. Yoon said rescuers were only able to pick up those who were in lifeboats or clinging to them, or who held the hands of people extended from other nearby boats. Yoon said she saw the cruise ship that rammed her boat keep sailing without stopping to help with the rescue after the collision.

Police launched a criminal in-

vestigation. The captain of the other ship in the collision, the Viking Sigyn, has been under arrest since June 1, suspected of endangering water transport leading to a deadly mass accident. The 64-year-old man is suspected of endangering water transport leading to a deadly mass accident. The Viking Sigyn, which left Budapest less than 48 hours after the collision with the Hableany, is back in Hungary on a scheduled trip and docked at the town of Visegrad, north of Budapest. Police said they carried out another inspection on the ship on Monday, but said there were no plans to seize the cruise ship. Hungary's state TV reported that all of the seven rescued people have been released from the hospital except one who is being treated for broken ribs.

Thirty South Korean tourists were aboard the sightseeing boat along with two South Korean guides and a photographer. Two Hungarian crewmembers are among the 21 missing. The South Koreans, mostly family groups, were on a package tour of Europe. Yoon was traveling with her mother, aunt and uncle. After she was rescued, she called her father in Seoul to tell him that she and her mother had survived. The fate of her two other relatives is unknown. Yoon's father, Yoon Seung-yong, told the Seoul-based Hankyoreh newspaper that his daughter felt guilty because she had organized the trip. "She cried and said, 'Dad, what should I do? I think this happened because of me.'"

It was still unclear what exactly caused the collision. A preliminary investigation showed that none of the South Koreans was wearing a life jacket at the time of the accident. Some experts in South Korea also raised questions over why the boat tour was allowed to proceed in the heavy rain with strong currents and compromised visibility.

"There's always a possibility of accidents when you decide to sail in those conditions," said Yun Jong-hwui, a professor at the Korea Maritime and Ocean University.

Associated Press writers Kim Tong-hyung in Seoul and Pablo Gorondi in Budapest, Hungary, contributed to this report.

거대한 크레인인 헝가리의 비극의 현장인 마르깃 다리의 바지선 위에 하빌라니(인어공주)를 올려놓았다. 구조대원들은 거의 2주 전 강 유람선과 충돌한 선박에서 4명의 시신이 추가로 발견된 직후 다뉴브 강에서 침몰한 관광선을 인양했다. 한국인 19명과 헝가리 선원 1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실종자는 여전히 8명이다. 5월 29일 폭우 속에서 야간 충돌로 7명의 한국인이 구조되었다.

크리스토프 갈 경찰 대변인은 사고 조사의 일환으로 부다페스트 경찰이 이 유람선을 타고 인근 세펠섬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구조대원들이 더 많은 희생자들을 찾기 위해 12일 이상 물속에 잠겨있던 배의 선체에 쌓인 침전물 사이를 가려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갈 대변인은 실종자 수색은 부다페스트 남부 다뉴브강 헝가리 구간에서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충돌로 실종된 희생

자들을 찾고 하빌라니를 인양하려는 노력은 부다페스트에서 앞으로 며칠 동안 현저하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다뉴브의 수위와 강물의 빠른 흐름과 수중에서의 거의 영점에 가까운 시야로 인해 저지되었다.

생존자들은 이 소형 유람선이 수요일에 1시간 동안 헝가리 수도의 야간 투어를 거의 끝냈으며, 더 큰 유람선이 도시의 랜드마크인 의회 건물 근처의 다리 아래에서 이 배를 들이받았을 때 거의 정거장 근처에 있었다고 말했다. 그들은 약 20명의 사람들이 갑판 위에서 사진을 찍거나 상륙을 준비하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선실에 있었다.

"나는 큰 유람선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는 것을 보았지만 그것이 우리 배를 덮칠 줄은 상상도 못했다,"라고 31세의 한국인 정모씨는 말했다. 그녀는 한국의 연합뉴스에 의해 인용되었다.

부다페스트에서 침몰한 유람선의 한국인 생존자들은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어둡침침하고 비오는 물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공포에 질려 지켜보면서 간신히 표류하는 구명정을 붙잡았다고 말한다. 이 배에 타고 있던 35명 중 한국인 33명을 포함해 7명만 구조됐다.

정씨는 갑판에 있던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충돌의 충격으로 차가운 다뉴브 바다에 던져졌다고 말했다. 경찰은 배가 뒤집혀 가라앉는데 7초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녀는 자기 가까이에 구명정이 표류하는 것을 보고 가까스로 그것을 손에 넣었고 그녀는 근처에 있던 또 다른 한국인 관광객 윤모씨에게 밧줄을 던졌다.

60세의 또 다른 생존자인 안씨는 근처를 항해하는 다른 관광선의 선원들이 그가 강으로 던져진 후 그에게 손을 내밀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손을 놓치고 물에 떠 내려가는 플라스틱 물건을 손에 넣기 전에 떠내려갔다. 윤씨는 구조대원들이 구명보트에 타고 있거나 매달린 사람들, 또는 인근 다른 배에서 뺀 사람들의 손을 잡고 있는 사람들만 구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윤씨는 자신의 배를 들이받은 유람선이 충돌 후 구조작업을 돕기 위해 멈추지 않고 계속 항해하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다.

경찰이 범죄 수사에 착수했으며 충돌한 다른 배의 선장인 바이킹 시킨은 6월 1일부터 치명적인 대량 사고로 이어지는 수상 수송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빌라니와 충돌한 지 48시간도 안 돼 부다페스트를 출발한 바이킹 시킨은 예정된 여행으로 헝가리로 돌아와 부다페스트 북쪽 비세그라드 마을에 정박한다. 헝가리 국영tv는 갈비뼈가 부러져 치료를 받고 있는 1명을 제외한 나머지 7명은 모두 퇴원했다고 보도했다.

무엇이 정확히 그 충돌의 원인이 되었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사전 조사 결과 사고 당시 한국인 중 구명조끼를 입은 사람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캔사스 한인업소록 (Kansas Korean Business Directory)

(업소변경, 삭제, 새로운 업소 정보는 kim@ kckoreanjournal.com으로 연락 주십시오.) 건강한의원 (Kan Acupuncture Clinic)원장 윤대일

가전제품 수리

A-2 Vacuum and Sewing Machine
816-456-9691
1523 Main St., Grandview, MO 64030
건축/집수리
Cho's Upholstery, 816-444-8656
7702 Wornall Rd KC, MO 64114
Ko Brother's Contractor Builder
913-219-2401
15455 Overbrook Ln., Stanley, KS 66224
Moon Tile 913-522-2311,
12817 W 77th St., Lenexa, KS 66216
Jin D Kim Construction INC, 816-810-6568
8110 N LONDON DR, KC, MO 64151
Young Kim Co, 913-634-2680
7575 W.106th St #13-14, OP, KS 66212
Yi's Home Repair, 913-634-4725
8809 Cottonwood St, Lenexa, KS 66215
구두수선
America Shoe Repair, 816-524-7555
618 SW 3rd St G, Lee's Summit, MO 64063
ACME Shoe Rebuilders, 913-682-5591
211 S. 5th St, Leavenworth, KS 66048
Rosana Shoe Hospital & Tailor
913-469-8070
7556 W 119th, OP, KS 66213
Westfield Shoe Repair, 913-334-2506
8131 State Ave, KC, KS 66112
금융
Family Financial Group:
용자 (장정호) 816-878-8778
106 South Main St, Spring Hill, KS 66083
Merrill Lynch (최원준) 913-906-5299
3401 College Blvd, Leawood, KS 66211
꽃집
Judy's Flowers & Gift, 913-492-1600
12267 W 87th St Pkwy, Lenexa, KS 66215
델리
Break Time Plus, 816-221-4146
2405 Grand Blvd #108, KC, MO 64108
B&L Sub 913-451-8585
7015 College Blvd, #120, OP, KS
Cafe 84, 913-327-8899
10801 Mastin Blvd #190, OP, KS 66210
Corporate Cafe, 913-451-9078
9401 Indian Creek Park Ste #175, OP ,KS
Gino's Deli, 913-342-8225
825 N. 7th Street KC, KS 66101
Hill Top Deli, 913-451-3744
10955 Lowell, #120, OP, KS 66210
In And Out, 816-421-5041
1007 Main St, KC, MO 64106
Hyundai Korean Restaurant, 913-682-5352
749 Shawnee, Leavenworth, KS 66048
Neo Delicatessen, 816-421-1788
1000 Walnut St, Ste 205, KC, MO 64106
4 Star Deli & Catering, 913-338-3065
7400 W. 110th St, OP, KS 66210
미용재료
A.Q.Beauty Supply, 816-761-8815
8708 Blue Ridge Blvd, KC, MO 64138
A.Q.Beauty Supply
3812 E. Truman Rd, KC, MO, 816-241-3123
3136 Stadium Dr, KC, MO, 816-861-7068
AQ Beauty Supply, 913-421-1145
1981 N. 63rd Drive KC, KS 66102
A.Q.Beauty Supplies, 913-758-1171
508 Delaware, Leavenworth, KS 66048
Bannister Beauty Supply & Bazaar
816-761-4300,
8236 Bannister Rd, KC, MO 64134
Beauty Essence, 816-753-8199
1319 Brush Creek Blvd, KC, MO 64110
Beauty N More, 816-753-2199
3814 Main St, KC, MO 64111

Super Bunny's Wigs & Boutiques
913-342-2176
3748 State Ave., KC ,KS 66102
CJ's Gold Department Store, 816-444-1500
1240 E. Meyer Blvd, KC, MO 64131
Tres Bliss Beauty/Glamourama, 816-361-5099
1240 E Meyer Blvd, KC, Missouri 64131
GenX, 816-333-7888
1104 E Meyer Blvd, KC, MO 64131
Ebony Wigs & Beauty Supplies, 816-421-0450
1216 Mcgee, KC ,MO 64106
Evelyn's Beauty Supply, 816-842-1400
1911 Baltimore, KC, MO 64108
King's Beauty Supply, 816-444-4333
7720 Troost Ave, KC, MO 64131
K.C. Discount Warehouse, 816-371-7766
932 Minnesota Ave, KC, KS 66101
Mid-K Beauty Supply,
1111 Brooklyn Ave, KC, MO, 816-421-1145
3523 Prospect Ave, KC, MO, 816-921-2255
Metro Beauty Supply, 816-444-9562
1636 E. 63rd St, KC, MO 64110
Metro North Wig Salon, 816-436-7840
400 NW Barry Rd, KC, MO 64155
Metro North Wig Salon, 816-436-7840
220 NE Barry Rd, KC, MO 64155
Unique Beauty Supply, 816-761-5255
7019 E 95th Street, KC, MO 64134
JT Beauty Supply, 816-763-1666
6851 Longview Rd, KC, MO 64134
Sonya Beauty Supply & Variety
816-767-9575
12030 Blue Ridge Blvd, Grandview, MO
Two Brother's Beauty Supply
843 Minnesota Ave, KC, KS, 913-621-1212
6429 State Ave., KC, KS, 913-788-1212
Wig City, 913-633-2550
10701 Shawnee Mission Pkwy
Shawnee, KS 66203
미장원
Great Cuts, 913-341-5265
10312 Metcalf, OP, KS 66212
Hair Care Family, 816-257-5321
17004 E. 24 HWY, Independence, MO 64056
Hyundai Beauty Salon, 913-682-6688
712 S. 5th St, Leavenworth, KS 66048
Sue's Beauty Salon, 913-682-2337
215 S. 5th Street, Leavenworth, KS 66048
Koreana Salon, 913-701-9417
12020 Blue Valley Pkwy, Ste 212, OP, KS
Salon DD, 913-777-0052
7800 Shawnee Mission Pkwy, OP, KS 66202
D & S Salon, 913-428-7827
6471 Quivira Rd, Shawnee, Kansas 66216
베이커리/ 도넛
Daylight Donuts, 913-884-8400
828 E. Main Gardner, KS 66030
Dave's Bakery & Deli, 816-461-0756
214 W. Maple, Independence, MO 64050
Daylight Donuts, 913-459-8219
8736 Lackman Lenexa, KS 66219
Tours Les Jours, 913-383-2828
10348 Metcalf Ave, OP, KS 66212
변호사
Kutak Rock, L.L.P. (김준범) 816-502-4612, 10412 Metcalf Ave, OP, KS 66212
Ray E. Sousley (Ray Sousley) 816-931-5000 800 Westport Rd, KC, MO 64111
Ji Hyun (Jennifer) Kim, Corporate Finance Law-
yer Stinson Leonard Street
816-691-3464
1201 Walnut Street, Ste 2900, KC, MO 64106
Susan Son, McCrummen Immigration Law
2005 Swift Ave., North KC, MO 64116
병원

건강한의원 (Kan Acupuncture Clinic)원장 윤대일
314-317-9900, 12935 Olive Blvd.
St. Louis, MO 53141 (주주식당옆)
로한 척추신경 & 침술 클리닉/ 로한 스킨 클리닉
816-444-1218,
404 Bannister Rd. Suite B, KC. MO 64131
www. lohanchiro.com, www.lohanskin.com
신태전 척추신경 통증 한방재활 병원:
913-649-2044,
7050 W 105th St. O.P. KS 66212
Kacclinic.com
장영준 치과 (State Ave Dental Office)
913-299-8554, 8476
6708 State Ave, KC. KS, 66102
Bethesda 척추/ 침술 클리닉: 913-341-1930
8014 State Line Rd. Suite 101 Leawood KS
Grandview Chiropractic and Acupuncture
Clinic (Dr. Kyunghwan An)
816-217-0020, 12421 Suite O Blue Ridge Blvd.,
Grandview, 64030
Oriental Acupuncture & Herb (김진수)
816-942-7879
12655 State Line Rd, KC, MO 64145
Excelsior Springs Nursing (황정호)
816-630-3145
1003 Meadowlark Ln, Excelsior Springs, MO
The University of Kansas Health System
Yoon Hang Kim MD 김 윤향 의학박사
대체의학, 침술, Phone 913-588-6208
4000 Cambridge St., Mailstop 1017, 2nd Floor
Sudler, Suite 2053, Kansas City, KS 66160
보석
A&G Jewelry 913-281-4794
4301 State Ave, KC, KS 66102
Han's Jewelers
913-299-3655, 7700 State Ave, KC, KS
913-648-5100, 10446 Metcalf Ave, OP, KS
보안시스템
Z & H Electronics 913-250-0677
605 Brookwood, Lansing, KS 66043
보험과 부동산/ 세무회계
BizPro 비즈 프로 세무, 회계/ 플래티넘 부동산 : Jun-
su Kim, Mia Bahn, 913-383-8558
10322 Metcalf Ave. O.P. KS 66212,
의료보험 에이전트 : 이리사 913-217-5169, 7180 W
107th St, #10, OP, KS
LeeLisa2014@yahoo.com
Bae Brothers Co (816) 333-1285
1240 E Meyer Blvd, Ste A, KC, MO 64131
Marks, Nelson Vohland & Campbell, Radetic
LLC (박정훈) 913-498-9000
7701 College Blvd Suite 150, OP, KS
Insurance Agent, Lisa Lee Moran, 913-217-
5169, lisa@autohomekc.com, 7180 W 107th St
#10, OP, KS 66217
부동산 중개
블락 부동산 BLOCKS Real Estate
Jennifer Jang, 장지연, 816-729-6232
jjang@blockllc.com
Paul Shin, 816-560-0988
pshin@moveiwith platinum.com
Explore Real Estate (박영림) 913-522-2475
11267 Strang Line Rd, Lenexa, KS 66215
Keller William Realty Partners Inc. (양혜연) 913-
266-5897, 913-484-6126 8005 W 110th St Suite
100, OP, KS 66210
K & K Inc.(이미애) 816-716-9001
1714-1726 W. 39th St, KC, MO 64111
6413 N. Park Ave, Gladston, MO 64118
사진관/프레임
Art & Frame 웨어하우스
98854 N Boardwalk, KC, MO, 816-584-8009
9216 Metcalf Ave, OP, KS, 913-385-9199
1032 W 136th St, KC, MO, 816-941-2307
상담/용역
Premier Medical Personnel (Nancy)
913-345-8484, 11038 Oakmont, OP, KS

세탁소

Country Meadows Laundrymat
816-524-5677
908 NE. Chipman, Lee's Summit, MO 64085
Country Cleaner, 816-373-3324
17201 E. 40 Hwy #109, Independence, MO
Central Coin Laundry 913-621-2224
1036 Central Ave., KC ,KS 66102
Dry Cleaner 816-891-8448
10018 N, W. Executive Hill Blvd, KC, MO
Diamond Cleaner 913-642-8353
6701 W. 75TH ST, OP, KS 66204
Easy Cash & Wash 816-924-3235
7000 Eastwood Trfy, KC, MO 64129
Holiday Cleaners (913) 631-6181
7945 E Frontage Rd, OP, KS 66204
Ida's Daisy Fresh Cleaners 816-436-6648 7521
N. Oak TRFWY, Gladston, MO 64118
Independence Coin Laundry 816-252-7776,
10816 E. 23rd St South, Independence, MO
Prestige Cleaners 816-763-2522
12200 Blue Ridge EXT #B, Grandview, MO
Koin Kleener 816-453-6303
601 N. W. Englewood, KC, MO 64118
Koko Laundry 913-682-2526
604 Pottawatomie St, Leavenworth, KS
Leawood Village Cleaners 816-942-3838 13009
State Line Rd, KC, MO 64145
Laundry Basket 816-923-0979
4418 E. 39th St, KC, MO 64128
Maple Hill Laundry 913-362-4525
2424 S. 34th St, KC, KS 66101
Oak Park Cleaner 913-599-3040
12230 W. 95th ST., Lenexa, KS 66215
Old Town Dry Cleaner 816-252-1677
3908 Lynn Court., Independence ,MO
Old Town Laundromat 816-254-4501
3910 Lynn Court., Independence, MO
Plattewoods Laundry 816-587-6695
6740 Tower Dr., Plattewood, MO 64151
Quinn's Laundry 816-322-1886
124 North Ave., Belton, MO 64012
Q. Cleaners 913-390-6181
2107 E. 151st St., Olathe ,KS 66062
Royal Master Cleaner 816-842-3375
1505 Grand Ave., KC, MO 64108
Rainbow Cleaners Drive In 913-236-9295
4511 Rainbow Blvd, KC, KS 66103
ST Coin Laundry 816-833-3021
2230 S Norton Ave D, Independence, MO
Supreme Cleaners & Shirt Laundry
816-761-3707
11114 Blue Ridge Blvd, KC, MO
Sta-Clean Cleaners, 816-421-6223
1120 McGee St., KC, MO 64106
Shamrock Dry Cleaners 816-942-2324
604 E. 99th St., KC, MO 64131
Shirley's Dry Cleaners, 816-444-4779
7936 Troost Ave., KC, MO 64131
Sparkling Coin Laundry, 816-741-3767 4605
NW. Gateway, Riverside, MO 64150
Sunshine Fabricare, 913-649-8364
8730 Santa Fe Dr., OP, KS 66212
Speedy Laundry, 913-631-6773
10403 W. 75th St, Shawnee, KS 66214
Tomahawk Laundromat 913-268-3535 10902 W
74th Terrace, Shawnee, KS 66203
The Dry Cleaners(MCI) 816-891-8448 10018 NW.
Executives Hill Dr, KC, MO
Tae's Laundry, 913-782-9345
223 S. Kansas Ave, Olathe, KS 66061
VIP Cleaner, 913-894-6606
10400 W. 103rd St, OP, KS 66215
Won's Cleaners, 913-722-1681
5921 Johnson Dr., Mission, KS 66202
Westwood Village Laundromat
913-432-8479

2801 W. 47th St., Westwood ,KS 66205
Young’s Dry Cleaning and Laundromat
1274 Merriam Ln, KC, KS 66103
스프링클러
Heritage Irrigation Co., 913-205-5922
11511 S Strang Line Rd Suite A, Olathe, KS
식당
조선 갈비 (Chosun), 913-378-3534
12611 Metcalf Ave, OP, KS 66213
초가 (Choga), 913-385-2151
6920 W. 105th St, OP ,KS 66212
소반 (Sobahn) 913-384-1688
7800 W 63rd St #3, OP, KS 66202
Bob Wasabi, 816-753-5797
1726 W 39th St, KC, MO 64111
Gangnam Restaurant (913) 383-8888
10326 Metcalf Ave, Overland Park, KS
Cafe Vie (베트남 쌀국수) 913-558-0600
10330 Metcalf Ave, OP, KS 66212
Haru Sushi, 816-942-1333
13133 Stateline Rd, KC, MO 64145
KoKoDAK 913-730-8054
14856 Metcalf Ave, Overland Park, KS
kodakchicken.com
Kokoro Maki Japaness Restaurant
340 W 75th St, KC, MO
(816) 363-0678 kokoromaki.com
Maru Sushi and Grill, 913-258-5879
5621 W 135th St #2620, OP, KS 66224
New Peking, 816-531-6969
540 Westport Rd, Kansas City, MO 64111
O Cafe (Korean), 785-312-9211
1530 W 6th St, Lawrence, KS 66044
Red Snapper, 816-333-8899
8430 Ward Pkwy, KC, MO 64114
Sushi Uni, 913-322-8667
12841 W 87th St Pkwy, Lenexa, KS 66215
Wa Japaness Restaurant, 785-843-1990
740 Masachusetts, Lawrence, KS 66044
식품점
동양식품 Oriental Supermarket
913-341-3345
10336 Metcalf Ave, OP, KS 66212
중앙식품 Joong Ang Grocery
913-384-4989
7800 W 63rd St #1, OP, KS 66202
현대 식품점, 913-651-2622
749 Shawnee St, Leavenworth, KS 66048
Arirang Market, 913-680-1381
626 B Cherokee St, Leavenworth, KS 66048
Chunco Foods, 816-283-0716
1400 E. 2nd St., KC, MO 64106
JOY 식품, 913-321-3177
930 Minnesota Ave, KC, KS 66010
여행사
Wing Gate Travel , 913-451-9200
8645 College Blvd #100, OP, KS 66210
오디오
Sound of Stereo,913-281-4601
920 Minnesota Ave KC, KS, 66101
의류
Bargain City Bazaar, 913-342-7002
916 Minnesota Ave, KC, KS 66101
Fashion In Motion, 816-361-2552
1256 E. Meyer Blvd, KC, MO 64131
Jung Tailoring Shop, 816-228-9191
103 SW State Route 7, Blue Springs, MO
Rome’s Boutique, 913-772-6885
414 Delaware St., Leavenworth, KS 66048
So Young Fashion, 816-421-1171
400 Grand Ave #66, KC, MO 64106
Young Fashion, 816-861-0006
3116 Prospect Ave, KC, MO 64128
Midway Shopping Center, 913-281-7035 4305
State Ave, KC, KS 66102
선물/화장품
동양 백화점/비디오 Oriental Gifts & Video
913-961-2533
10346 Metcalf Ave, OP, KS 66212

Mary Kay, 913-397-6706
11730 W. 135St #11, OP, KS 66221
Olathe BP, 913-402-9331
1605 E Santa Fe, Olathe, KS 66061
의류수선
Speedy Alteration, 913-248-1151
7727 Quivira Rd, Shawnee Mission, KS 66216
Corinth Alteration, 913-383-9560
4185 Somerset Dr, Praire Village, KS 66208
Camelot Court Alteration, 913-327-5525
11831 Roe Ave, Leawood, KS 66209
Kim’s Tailor Shop, 913-451-2727
4872 W. 119th St, Leawood, KS 66209
Kim’s Alteration, 816-228-1355
919 W. 40 HWY, Blue Springs, MO 64105
K.C.Alteration, 816-474-8333
814 Grand Ave., KC, MO 64106
Lee’s Alteration, 816-765-2255
7011 E. Bannister Rd., KC, MO 64134
Leawood Alteration, 816-942-8057
12925 State Line., KC, MO 64145
Lenexa Fashion & Alteration, 913-888-0960
14924 W. 87th St, Lenexa, KS 66215
M & J Tailor Shop, 913-782-8107
18280 157 ST, Olathe, KS 66062
Maxines, 913-341-2534
9528 Hadley, OP, KS 66212
Park’s Alteration, 816-221-3129
304 E. 21st Ave., KC, MO 64116
Tom Tailor Shop, 913-888-8737
10392 Mastin, OP, KS 66212
Quivira Taylor, 913-851-4991
11670 W. 135th St, OP, KS 66221
자동차 수리/판매/부속
Elim Motor (김종수) – 판매, 913-371-4841
29 S. 18th St, KC, KS 66102
Jo’s Auto & Body Center Inc.
(정판조) – 수리,816-923-0330
3333 Stadium Dr, KC, MO 64128
Shawnee Auto Motive Center
(권정수) – 수리 913-631-3497
11015 W. 58th St, Shawnee ,KS 66023
전자회사
Maxon America, Inc., 913-859-9515
11535 W 83rd Ter, Lenexa, KS 66214
www.maxonamerica.com
DataLocker, 913-310-9088
7007 College Blvd #240, OP, KS 66211
잡화
Dollar Mart, 816-861-2223
3105 Prospect Ave, KC, MO 64128
Hyesuk Haglin, 816-822-0375
6025 State Line Rd., KC, MO 64113
조경/잔디
Lee’s Lawn & Tree Service, 816-524-7582 11714
Milton Thompson Rd
Lee’s Summit, MO 64068
Young Brothers Lawn & Tree Service
816-616-3292, 816-318-1667
2101 E 183rd St, Belton, MO 64012
주류 판매
Bi – Lite, 816-761-7337
12818 S. 71 HWY, Grandview, MO 64030
C & J Enterprise Inc, 816-253-9112
#2 Robin Dr, Agency, MO 64401
Deluxe Liquor, 816-231-8119
4205 E. 24th St, KC, MO 64127
ISO Growell Corp, 913-383-5344
10412 Metcalf Ave., OP ,KS 66212
J&L Discount Wines & Spirits, 913-648-1770
10304 Metcalf Ave., OP ,KS 66212
KC Liquor, 913-441-8423
10320 Kansas Ave, Bonner Springs, KS
LG Infocomm USA, INC, 913-498-5912
6201 College Blvd Suite 350, OP, KS 66211
Ray’s Discount Liquor, 913-268-9862
7422 Nieman Rd., Shawnee, KS 66203
Shamrock Liquor
10326 Blue Ridge Blvd, KC, MO 64134

816-966-9917
11810 Blue Ridge Blvd, KC, MO 64134 816-
763-3380
Sommer’s Liquor, 913-371-2020
146 S. 18th St, KC, KS 66102
Tec Net Int’l Inc, 816-584-8638
1420 NW Vivion Rd #109, KC, MO 64118
Tekk Incorporated, 816-746-1098
226 NW. Parkway, Riverside, MO 64150
Westport Wine & Liquor, 816-561-3500
1106 Westport Rd, KC ,MO 64111
주유소
INNER CITY OIL, 913-371-4521
540 S. 10 th Street, KC ,KS 66102
Swansea Inc./Phillip 66
913-488-163/785-842-6816
1801 W 2nd St., Lawrence, KS 66044
청소용품
T.B.S Co. Inc., 913-722-1106
3054 S.24th Street, KC, KS 66103
www.jaytbs.com
청소
Am-Ko Building Maintenance, INC.
(John Lee) 913-980-8888
P.O. Box 2277, Shawnee Mission, KS 66201
GBM, 913-209-3639
12057 Hayes Ln #144., OP, KS 66213
G.Y. Janitorial Service, 913-239-9848
13908 Bradshaw., OP ,KS 66221
HBM INC., 913-321-3303
400 State Ave, KC, KS 66106
Jong’s Building Service, 816-651-6007
11717 W. 99th St, OP ,KS 66214
Lee’s Janitorial Service, 913-962-0742
7110 Long Ave., Shawnee, KS 66216
Park’s Maintenance, 816-243-5669
7512 N. Rhode Ave KC ,MO 64153
World Wide Cleaning Company
913-290-9638
13403 Ballentine Rd, OP, KS 66213
Young’s Service Corp., 913-683-0308
2021 Cambridge., Leavenworth ,KS 66048
카운셀링
캔사스 시티 카운셀링 센터
(KC Counseling Center) 916-929-5557
10100 Metcalf Ave, O.P. KS 66212
컨비니언스 스토어
ConerSide Market, 816-254-2221
108 N. Sterling Ave, Sugar Creek, MO 64054
Pop’s Quik Shop, 816-483-5095
3402 E. 9th St., KC ,MO 64124
컨설팅
Sook Park, 785-296-3760
1000 S. W. Jackson Ave # 100., Topeka ,KS
테레도
Choon Lee’s Academy Of Taekwondo
121 NE. 72nd St., Gladston, MO
816-439-5909
1975 N. 63rd St., KC ,KS
913-299-5425,
11453 W. 64th St, Shawnee, KS 66203
913-631-1414
Ko’s Black Belt Academy
3413 NW. Mill Dr., Blue Springs, MO 64015
816-224-0000
3923 S . Noland, Independence, MO 64055
816-254-0000
818 SW Blue Pkwy, Lee’s Summit, MO 64063
816-525-4300,
2045 W. Kansas, Liberty, MO 64068
816-781-3800
11632 W. 135th St, OP, KS 66221
913-897-1300,
10528 Metcalf, OP, KS 66212
913-341-2000
Kim’s Taekwondo Pavilion, 913-897-0456
10002 W. 129th St, OP, KS 66213
USA Taekwondo Academy, 913-685-4858,
KMC Taekwondo Academy, 913-205-0232 8841

Glenwood St., OP, KS 66212
Korea America Taekwondo Education Inc.
2127 E 151st Olathe, KS 66062
913-390-0888
12817 W. 87th Street Parkway Lenexa, KS
913-310-9600
22338 W. 66th Street, Shawnee, KS 66226
913-441-6520,
19321 E. US-40 Highway Suite P
Independence, MO 64055
816-795-1090
3715 W. 133rd Street, Leawood, KS 66209
913-498-0910
14877 Metcalf Ave., OP, KS 66223
913-851-1960
Kim Dokhan USA, 816-356-8282
6129 Blueridge Blvd Raytown, MO 64133
Master’s Martial Arts Academy
913-681-1022
14868 Metcalf Ave, OP, KS 66223
Pak’s Academy Of Taekwondo
411 Pine St, Raymore, MO 64083
816-322-5000
SunYi Traditional Taekwondo Academy
785-266-8662
410 SW 33rd St, Topeka, KS
투자/상담
KJ Consulting
P.O. Box 1775, Lawrence, KS 66044
특수기술
Spartan Laser Inc., 816-353-7700
6501 Hadley, KC, MO 64133
학교/학원/보육
놀이방: ABC Day Care, 913-651-6907
1510 10th Ave., Leavenworth, KS 66048
학습지: KUMON 구몬 영어,수학
8502 W 133rd St, OP, KS, 913-897-1111
151st St. & Nall Ave., 913-681-0400
kumon.com/stanley
골프: 개인교습, 김준배 PGA 프로골퍼,
913-897-3809, 913-558-7997/
www.golfop.com, jbkkgolf@gmail.com
미술: 이안 아트스쿨, 816-646-1376
newspring78@naver.com
www.artstudioian.com
8841 Glenwood St. O.P. KS 66212
음악: KC 음악학원 (피아노 : 913-272-1177, 바이올
린 913-687-6784)
한글교육 : 캔사스 시티 한국학교 816-469-8110.
8841 Glenwood St. O.P. KS 66212
호텔/모텔/여관
Crown Lodge, 816-353-3000
8500 E State Rte 350, KC, MO 64133
Comfort Inn, 816-632-3909
1803 Comfort Lane, Cameron, MO 64429
Ramada Inn, 620-343-2200
2700 W. 18th Ave., Emporia, KS 66801
Village Inn, 785-242-4433
2520 S. Main St., Ottawa ,KS 66067
화방/사진
Cha Fine Art Studio, 913-962-2118
6656 Charles Dr., Shawnee, MO 66216
Diane Flynn-Yi Portrait, 816-532-8026
14605 Killarney Lane, Smithville, MO 64089
하팅/쿨링
Bee Tech Service, 913-980-2464
1106 S Palmer Ln, Olathe, KS 66061
Dokko’s Specialty Service, 913-685-0451
12824 Mastin St, OP, KS 66213
기타
Yedang Village LLC, 913-972-6645
13881 138th St. #104, Olathe ,KS 66062

LATEST HONG KONG PROTEST ENDS PEACEFULLY WITH DEMANDS UNMET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평화적으로 끝낸 홍콩 시위

By RAF WOBER Associated Press

HONG KONG (AP)

Protesters in Hong Kong besieged police headquarters late into the night Friday, throwing eggs at the building and drawing graffiti on the walls, before ending a day of demonstrations in the Asian financial center with their demands unmet.

By daybreak Saturday, police had cleared the streets of barriers set up by protesters to snarl traffic in the Asian financial center, and only a few groups in the mostly youthful crowd remained. Many slept outside the Legislature.

Some demonstrators said in TV interviews that they had made their point but were disappointed that neither the police nor government leaders had come to talk to them.

Hong Kong has been rocked by major protests for the past two weeks over legislative proposals that many view as eroding the territory's judicial independence and, more broadly, as a sign of Chinese government efforts to chip away at the freedoms of the semi-autonomous city.

Hong Kong leader Carrie Lam indefinitely suspended debate on the bills a week ago, making it likely they would die.

But protesters are demanding that she formally withdraw the proposed changes to the extradition laws. Some also want her to resign.

The peaceful ending to Friday's protests drew a sigh of relief in the city of 7.4 million people, after police unleashed tear gas and rubber bullets last week in violent clashes with protesters that left dozens injured on both sides.

Police were previously criticized for their use of force but this time waited out the protesters. Police did issue a statement at 4:50 a.m. condemning them for blocking key streets and seriously disrupting work at police headquarters.

"Police have shown the greatest tolerance to the protesters who assembled outside PHQ, but their means of expressing views have become illegal, irrational and unreasonable," the statement said in part.

Activist Joshua Wong called on police to answer demands over heavy-handed tactics used during a mass protest on June 12, including the firing of 150 rounds of tear gas, rubber bullets and beanbag rounds, and the beating of unarmed protesters by police with truncheons.



"We ... urge police to apologize to the people" over the use of such tactics and their labeling of the gathering as a riot, Wong said.

While anger seemed to be turning away from civil authorities and toward the police, the mostly black-clad protesters continued to try to shut down the entire government complex, as they have tried off-and-on for the past two weeks. During the afternoon, some sought to build barriers on Connaught Road, the main thoroughfare in the area known as Admiralty, building barriers of stones, pylons and other materials at hand, at one time temporarily blocking in a police van.

Around police headquarters, masked and helmeted protesters covered surveillance cameras with masking tape and lashed barriers together with nylon cable ties.

The auxiliary bishop of Hong Kong's Catholic diocese, the Rev. Joseph Ha, appealed to the

protesters to avoid violence.

He warned that public opinion could turn against them.

"You have already been on the roads for a long time," he said on Cable TV Hong Kong. "You've already done a lot. You have already expressed very clearly your hopes and wishes. But I am really worried about your personal safety. ... Please, absolutely, do not use violence."

Protest leaders have said they are determined to keep up the pressure on Lam, who has insisted the bills are needed to uphold justice. But critics see them as part of a campaign by Beijing to diminish Hong Kong's democratic institutions. "I myself am not the type to get involved in violence," student protester Brian Chow said. "I'll just carry on sitting here, sing some Christian hymns, show our resistance, and keep the government paralyzed until it responds to us."

Many protesters have been wary of giving their full names

and some have obscured their features with facemasks to guard their identities against potential retribution from government or school authorities. Government offices were ordered closed Friday “due to security considerations,” and hearings at the Legislative Council were suspended. Since the confrontations June 12, police have eased their approach, hoping to avoid a replay of 2014 protests, when officers unleashed 87 rounds of tear gas at protesters in the same location as the current protests.

When the smoke from that response cleared, bigger crowds returned, angrier than before, and didn't leave for nearly three months.

The bills would expand the scope of criminal suspect transfers to include mainland China, Taiwan and Macau. Legal and business groups in Hong Kong oppose the legislation, saying critics of China's ruling Communist Party would be at risk of torture and unfair trials on the mainland and that it further chips away at the “one country, two systems” framework under which Hong Kong has been governed since 1997.

That framework guaranteed the territory the right to retain its own legal, economic and political system for 50 years, but the Communist Party under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has been pushing ever more aggressively to quiet independent voices in Hong Kong. Beijing has squelched all reporting on the protests in mainland media and accused

foreign forces of stirring up disturbances in Hong Kong. Opposition to the legislation has come from a broad range of civic, human rights, legal profession and commercial organizations.

On Friday, the Hong Kong Bar Association reiterated its criticisms, saying Lam's decision to suspend but not withdraw the bill was “wholly unsatisfactory” because it could still dictate the parameters of future consultation on the issues of surrender of fugitives and cross-border legal assistance. The association also called for the setting up of an independent commission to investigate the June 12 violence, including whatever guidelines existed on the use of force by police against demonstrators. Amnesty International went a step further, saying police must “end the unlawful use of force against peaceful protesters,” and issuing a report documenting 14 incidents of apparent police violence on June 12.

Officers appeared “out of control, placing peaceful protesters who posed no threat in danger of serious injury,” Man-kei Tam, the group's Hong Kong director, said in a statement.

홍콩 시위대는 금요일 밤늦게까지 경찰본부를 포위해 건물에 계란을 던지고 벽에 낙서를 그려넣은 뒤 아시아 금융센터에서의 하루 동안의 시위를 자신들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채 마무리했다.

토요일 날이 밝을 무렵, 경찰은 아시아 금융 센터의 교통을 방해하기 위해 시위자들이 설치한 장벽들을 치웠고, 대부분 젊은 사람들 중 몇몇 그룹만이 남아있었다. 홍콩은 지난 2주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의 사법적 독립을 잠식하는 것으로 보는 입법안을 둘러싸고 주요 시위를 주도해 왔으며, 도시의 자유를 빼앗으려는 중국 정부의 노력의 표시로 인해 큰 충격에 휩싸였다.

홍콩 지도자인 캐리 램은 일주일 전에 이 법안들에 대한 토론을 무기한 중단함으로써 이 법안들이 죽을 것 같다. 그러나 시위자들은 그녀가 제안된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을 정식으로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주 경찰이 양측 시위자들과의 격렬한 충돌로 최루탄과 고무탄을 발사하여 수십 명의 부상자를 낸 후 금요일의 시위는 740만 명의 시민들에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경찰은 이전에 그들의 무력 사용으로 비난을 받았지만 이번에는 시위자들을 기다렸다. 경찰은 오전 4시 50분에 주요 도로를 봉쇄하고 경찰 본부의 업무를 심각하게 방해한 것에 대해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6월 12일 대치 이후, 경찰은 그들의 접근을 완화했다.

분노는 시민 당국으로부터, 그리고 경찰을 향해 등을 돌리고 있는 것 같았지만, 대부분 검은 옷을 입은 시위대는 지난 2주 동안 설새 없이 정부종합청사 전체를 폐쇄하려고 애썼다. 시위대 지도자들은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 법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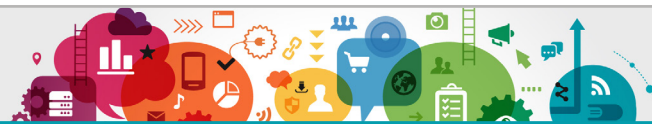
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온 램에 대한 압박을 계속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비평가들은 그들을 홍콩의 민주주의 제도를 축소하려는 베이징의 캠페인의 일부로 보고 있다. 이 법안은 범죄 혐의의 범위를 중국 본토, 대만, 마카오로 확대할 것이다.

홍콩의 법조계와 재계 단체들은 중국 집권 공산당의 비판자들이 본토에서 고문과 불공정한 재판을 받을 위험이 있으며 1997년 이후 홍콩이 통치하고 있는 “하나의 국가, 두 개의 체제”의 틀을 더욱 훼손하고 있다며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이 프레임워크는 50년 동안 영토에 자체의 법적, 경제적, 정치적 체제를 유지할 권리를 보장해 주었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휘하의 공산당은 홍콩에서 독립적인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중국 정부는 본토 언론들의 시위에 대한 모든 보도를 일축하고 외국 군대가 홍콩의 소요를 선동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법안에 대한 반대는 광범위한 시민, 인권, 법조계, 상업 단체에서 비롯되었다.

금요일 홍콩 변호사 협회는 램이 이 법안을 보류했지만 철회하지 않은 것은 “매우 불만족스럽다”고 말하면서, 이 법안이 여전히 탈주자들의 항복과 국경을 넘는 법적 지원 문제에 대한 향후 협의의 매개 변수를 지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협회는 또 시위대에 대한 경찰의 무력 사용에 관한 지침이 무엇이든 포함한 6/12 폭력사태를 조사할 독립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



MILLIONS OF PIGS CULLED AS SWINE FEVER SPREADS THROUGH ASIA 돼지열병-아시 아 전역 수백만 마리의 돼지 도살

By HAU DINH and SAM McNEIL Associated Press

HANOI, Vietnam

Millions of pigs have been culled in China and Vietnam as a U.N. food agency urges Asian governments to make containing virulent African swine fever their top priority. With an announcement by the U.N. Food and Agricultural Organization that infections have spread to Laos, some experts are saying it is the largest animal disease outbreak in history.

The FAO said in a report late Thursday that more than 3.7 million pigs in the region had been culled since the outbreak began in China last August. Vietnam has been the hardest hit, culling at least 2.6 million pigs followed by China, which reported more than 1.1 million. All the figures were provided to the FAO by governments of countries affected by the epidemic.

Smaller outbreaks have been reported in Hong Kong, Taiwan, North Korea, Cambodia and Mongolia after cases were first reported in China's north-east in August.

African swine fever is harmless to people but fatal and highly contagious for pigs, with no known cure.

With pork supplies dwindling

as leading producer China and hard-hit Vietnam destroy huge numbers of hogs and tighten controls on shipments, prices have soared by up to 40% globally and caused shortages in other markets.

"This is the largest animal disease outbreak in history," said Dirk Pfeiffer, a veterinary epidemiologist at the City University of Hong Kong. "We've never had anything like it." In South Korea, where diets rely heavily on pork, there is concern an outbreak could hurt an industry with 6,300 farms raising more than 11 million pigs.

"Animal disease containment in its broadest sense should be prioritized within the highest levels of governments," the FAO said, warning, "Outbreak control strategies must be in place."

China has reported 139 outbreaks in all but two of its 34 provinces.

The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forecasts its total hog herd will shrink by 18% this year to 350 million animals, the lowest since the 1980s. This year's Chinese pork output might fall by up to 35%, according to Rabobank, a Dutch bank.



Vietnam reported in mid-May that 1.2 million pigs, or about 5% of its total 30 million, an industry worth \$18 billion, had died or been destroyed. FAO said Thursday that number had more than doubled to 2.6 million. Military and police were mobilized to help contain the outbreak, officials said. Rabobank expects Vietnamese pork production to fall 10% this year from 2018.

The mass culling in Vietnam could sink many farmers deeper into poverty, said Wantanee Kalpravidh, a regional coordinator of the FAO's Emergency Center for Transboundary Animal Disease.

Last month, Prime Minister Nguyen Xuan Phuc urged authorities to prevent the disease, found in 58 of 63 provinces, from escalating into an epidemic.

In My Duc, a suburb of Hanoi, disinfecting lime powder has been scattered around empty pig farms and checkpoints

were set up to control shipments.

"We have to prevent and fight this disease like fighting an enemy," Phuc told Cabinet officials.

Farmer Nguyen Van Hoa lamented that only three pigs had died from the fever but authorities culled 40 of his pigs. They were among 14,000 hogs buried in My Duc district in the past month.

About 2.4 million Vietnamese households engage in small-scale pig farming. In Cambodia, more than 2,400 pigs have died or were culled since April in an eastern province bordering Vietnam, the FAO said.

Sem Oun, a 58-year-old farmer and father of two in Ta Prum, a village near the capital Phnom Penh, frets that the illness could spread from Vietnam.

"I don't have any other job and my income that provides for my entire family relies

solely on these pigs. If they die because of swine flu then everybody in the family will die too," he told The Associated Press.

Hong Kong authorities have killed 10,700 pigs in two outbreaks, including one triggered by an animal imported from the mainland that was found to be infected. Two dead pigs infected with a virus similar to those in mainland Chinese were found in Taiwan, the FAO says.

Epidemic fighting efforts have gotten entangled in regional geopolitics.

North Korea scaled back cooperation with South Korea after the collapse of a February summit between North Korean leader Kim Jong Un and President Donald Trump, hampering joint work on stemming the spread of the disease following an outbreak near North Korea's border with China. South Korea's agricultural ministry said that blood tests of pigs from some 340 farms near the border with the North were negative. Fences and traps have been installed near farms to protect hogs from being infected by wild boars that roam the inter-Korean border. The North's official Rodong Sinmun newspaper said quarantine efforts were focused on disinfecting farms and transport vehicles, restricting visitors, and banning the distribution of food products containing pork. Its references to nationwide quarantine efforts suggest the disease may have spread beyond regions near China.

Thailand and other countries

still free of infections have taken strong preventive actions, including banning importation of pork, sausages, ham, or bacon.

Sorawit Taneeto, director-general of Thailand's Department of Livestock Development, urged people to cooperate with soldiers at checkpoints in border provinces and quarantine areas. Airports are using more dogs like beagles to help in luggage inspections.

McNeil reported from Beijing. Sopheng Cheang in Phnom Penh, Johnson Lai in Taipei, Taiwan, and Pitcha Dangprasisith and Jim Gomez in Bangkok contributed to this report.

유엔 식량 기구가 아시아 정부들에게 치명적인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가장 우선시할 것을 촉구하면서 중국과 베트남에서 수백만 마리의 돼지들이 도살되었다.

FAO는 지난 목요일 보고서에서 지난 8월 중국에서 발병한 이후 이 지역에서 370만마리 이상의 돼지가 도살되었다고 말했다. 베트남이 가장 큰 타격을 입어 최소 260만 마리의 돼지를 도살한 데 이어 중국은 110만마리 이상을 도살 처분했다. 그 수치들은 모두 전염병의 영향을 받은 국가들의 정부에 의해 FAO에 제공되었다.

홍콩, 대만, 북한, 캄보디아, 몽골 등지에서 8월 중국 동북부 지역에서 소규모 발병 사례가 보고되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사람들에게 해롭지 않지만, 알려진 치료법이 없는 돼지들에게는 치명적이고 전염성이 높다. 주요 생산국인 중국이 돼지 고기의 공급이 감소하고 타격이 심한 베트남이 엄청난 수의 돼지를 도살하고 출하량을 통제함에 따라, 가격은 전 세계적으로 40%까지 치솟았

고 다른 시장의 시장에서도 부족을 야기했다.

돼지 고기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서 1,100만 마리이상의 돼지 사육 농가 6,300 여곳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중국은 34개 성 중 두곳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139건의 발병이 발생했다고 보고했다. 미국 농무 부는 그것의 전체 돼지 떼가 올해 18%까지 감소하여 3억 5천만 마리의 동물로 1980년대 이후 가장 낮을 것으로 예상한다. 네덜란드의 한 은행에 따르면 올해 중국산 돼지 고기 생산량은 35%까지 감소할 것이라고 한다.

미국 농무부는 전체 돼지 떼가 올해 18%까지 감소하여 3억 5천만 마리로 1980년대 이후 가장 낮을 것으로 예상한다. 네덜란드의 한 은행에 따르면 올해 중국산 돼지 고기 생산량은 35%까지 감소할 것이라고 한다. 라보 뱅크는 올해 베트남산 돼지 고기 생산량이 2018년에 비해 10%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베트남에서의 대규모 매몰 처분은 많은 농민들을 빈곤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들게 할 수 있다"고 FAO의 전염병 가축질병센터의 지역 책임자인 완타니 칼프라비드가 말했다. 지난 달, 응우옌 수상은 당국에게 63개 지방 중 58개 지역에서 발견된 이 질병이 전염병으로 번지는 것을 막을 것을 촉구했다. FAO는 캄보디아에서 4월부터 베트남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동쪽 지역에서 2,400마리 이상의 돼지가 죽거나 도살되었다고 말했다. 홍콩 당국은 두 차례에 걸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본토에서 수입된 동물이 축발시킨 돼지 한마리를 포함해 1만 700마리의 돼지를 죽였다.

북한은 중국과의 국경 근처에서 발생한 조류독감 발생 이후 남한

과의 협력을 축소함으로써 조류독감 확산을 막기 위한 공동 작업을 방해했다. 농림부는 북한과의 국경 인근 340여 농가의 돼지 혈액 검사에서 음성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다. 농장 근처에는 남북한 국경을 배회하는 멧돼지에 감염되지 않도록 돼지를 보호하기 위한 울타리와 덫이 설치되어 있다.

북한 노동신문은 농장과 수송차량을 소독하고 방문객을 제한하며 돼지고기를 함유한 식품 유통을 금지하는 등 방역 노력이 집중됐다고 전했다. 전국적인 방역 노력에 대한 언급은 그 질병이 중국 근처의 지역을 넘어 퍼졌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태국과 여전히 감염이 없는 다른 나라들은 돼지고기, 소시지, 햄, 베이컨의 수입을 금지하는 것을 포함한 강력한 예방 조치를 취했다.

FED LEAVES ITS KEY RATE UNCHANGED BUT HINTS OF FUTURE CUTS

By MARTIN CRUTSINGER AP Economics Writer

WASHINGTON

The Federal Reserve left its key interest rate unchanged Wednesday but signaled that it's prepared to start cutting rates if needed to protect the U.S. economy from trade conflicts and other threats.

The Fed kept its benchmark rate — which influences many consumer and business loans — in a range of 2.25% to 2.5%, where it's been since December.

It issued a statement saying that because “uncertainties” have increased, it would “act as appropriate to sustain the expansion.” That language echoed a remark Chairman Jerome Powell made two weeks ago that analysts interpreted as a signal that rate cuts were on the way.

The uncertainties the Fed referred to clearly include President Donald Trump's trade conflicts, especially with China. The effects of tariffs and counter-tariff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have become perhaps the leading threat to the U.S. economic expansion, which next month will become the longest on record.

In its statement, the Fed removed a reference to being “patient” about adjusting rates. That suggested that it's now inclined to begin cutting rates

for the first time in more than a decade. It remains unclear, though, when that might happen.

The Fed's decision was approved on a 9-1 vote, with James Bullard, president of the Fed's St. Louis regional bank, dissenting because he thought the central bank should begin cutting rates now. It marked the first dissent from a Fed decision since Powell became chairman in February last year. On Wall Street, stocks rose and bond yields dipped, reflecting investor expectations of lower rates ahead. The Dow Jones Industrial Average added a modest 38 points. But investors snapped up bonds and sent their yields tumbling. The yield on the 10-year Treasury note sank to 2.03 percent, its lowest point since Trump's election in November 2016.

A survey of the 17 Fed officials showed that nearly half now expect at least one rate cut this year, with seven projecting two cuts. When they previously issued forecasts in March, none had predicted a rate cut in 2019.

Many Fed watchers have said they think the policymakers want to first see whether a meeting that Trump and President Xi Jinping are to hold late next week at a Group of 20 nations summit in Japan pro-

duces any breakthrough in the U.S.-China trade war.

That meeting carries opportunity as well as risks, said Jay Bryson, global economist at Wells Fargo.

It's possible the meeting could lead to the removal of tariffs that would help growth and nullify the need for rate cuts. But it's also possible that the leaders of the world's two largest economies could deepen their feud and that new import taxes could be launched.

“The clearest and present danger is the G-20 meeting next week,” Bryson said. “It could go either way.”

Many analysts think the central bank will wait until September at the earliest to announce its first drop in its benchmark short-term rate since 2008 and might not cut again in 2019. A few Fed watchers foresee no rate cut at all this year, especially if the United States and China reach some tentative resolution to the trade war. Complicating the timing of possible rate cuts is an escalation of attacks on the Fed by Trump as he gears up for his 2020 re-election campaign. Trump's public criticism, a highly unusual action for a president, has raised concern that he is undermining the Fed's independence as a central bank. The president has asserted that under Powell's leadership, the Fed hurt the economy by tightening credit too much last year and by failing to lower rates since then. This week, Trump was asked about a news report that the

White House in February had explored whether the president had the authority to demote Powell as chairman while leaving him on the Fed's board. “Let's see what he does,”

Trump said of Powell. “They're going to be making an announcement very soon. So we'll see what happens.”

The president has previously explored firing Powell. But under the law, a Fed board member, like Powell, can be fired only for cause.

At his news conference, Powell was asked what he would do if Trump said he intended to demote him.

“I think the law is clear that I have a four-year term, and I fully intend” to fulfill it,” the chairman said, reiterating what he has said previously. The Fed is meeting at a time when the U.S.-China trade war has magnified concern and uncertainty for businesses and investors about whether and how much the economy will suffer. The U.S. manufacturing sector, in particular, is weakening. This week, the Federal Reserve Bank of New York reported that an index it compiles of manufacturing in New York state plunged this month into negative territory — to its lowest point since 2016. The index reflects manufacturing conditions in the state.

In some encouraging news, Trump tweeted Tuesday that he had spoken by phone with Xi and that the two leaders plan “an extended meeting” at a Group of 20 nations summit in Japan late next week. Trump



also said that before his meeting with Xi, negotiators for the two sides will resume talks. Also Tuesday, Mario Draghi, head of the European Central Bank, said the ECB was ready to provide further stimulus, including rate cuts, if the eurozone economy doesn't strengthen soon.

Draghi's comments sent the value of the euro tumbling against the dollar, prompting an angry tweet from Trump accusing the ECB leader of acting to weaken the euro to gain a competitive trade advantage against the United States.

AP Economics Writer Josh Boak contributed to this report.

미 국 연방준비제도가 수요일 주요 금리를 동결했지만 미국 경제를 무역 분쟁과 기타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금리 인하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12월 이후 지속된 2.25%에서 2.5%범위에서 기준 금리를 유지했다. 연준이 발표한 성명은 '인내심을 가질 것'이라는 문구가 빠지고 대신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문구가 들어갔습니다. 사실상 금리 인하를 시사한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금리동결론을 지지했던 이사들이 통화 완화적 근거가 강해졌다는데 공감하고 있다"며 이를 뒷받침했다. 연준이 언급한 불확실성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분쟁, 특히 중국과의 갈등 등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관세와 관세의 영향은 아마도 다음달에 가장 긴 기록으로 남은 미국 경제의 팽창에 가장 큰 위협이 될 것이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오늘 성명을 통해 세율 조정에 대한 "환자"라는 언급을 삭제했다. 그것은 중앙 은행이 이제 10년만에 처음으로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것을 암시했다. 그것이 언제 일어날지는 불분명하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결정은 9대 1의 표결로 승인되었다. 루이스 지방 은행은 중앙 은행이 지금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반대했다. 이는 지난해 2월 파월이 의장이 된 이후 처음으로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의 결정에 반대한 것이다.

월가에서는 주가가 상승하고 채권 수익률이 하락해 앞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를 반영했다. 다우 존스 산업 평균 지수는 38포인트로 약간 올랐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채권을 매도하고 수익률을 폭락시켰다. 10년 만기 재무부 증권의 수익률은 2.03%로 2016년 11월 트럼프 당선인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연준 안팎에선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국가 주석이 다음 주 말 일본에서 열리는 G20정상 회의에서 만날 것인지가 미중 무역 전쟁의 돌파구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 회의가 성장을 돕고 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많은 분석가들은 한은이 2008년 이후 처음으로 기준단기 금리 인하를 발표하기 위해 이르면 9월까지 기다리다가 2019년에 다시 인하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연준 관측통들은 특히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에 대해 잠정적인 해결책에 도달한다면 금년에는 금리 인하가 전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재선전을 앞두고 연준에 대한 공격 수위를

를 높인 것은 금리인하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대통령으로서 매우 이례적인 행동인 트럼프의 공개비판은 중앙은행으로서 연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대통령은 파월 장관의 지휘 아래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지난해 신용경색을 지나치게 강화하고 그 이후 금리를 인하하지 않아 경제에 타격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미 연준은 미-중 무역 전쟁이 경제가 얼마나 고통 받을지에 대한 기업과 투자자들의 우려와 불확실성을 확대하고 있는 시점에 회담을 갖고 있다. 특히 미국 제조업 부문은 약화되고 있다. 이번 주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뉴욕주의 제조업 지수가 이달 들어 마이너스로 떨어졌다고 발표했다. 그 지수는 주의 제조업 상태를 반영한다.

KANSAS UNEMPLOYMENT RATE REMAINED AT 3.5% IN MAY; JOBS GREW

TOPEKA, Kan.

Kansas is reporting that its unemployment rate remained at 3.5% in May and that the number of private sector jobs grew slightly over the previous year.

The state Department of Labor says the seasonally adjusted unemployment rate in May was higher than the 3.3% rate in May 2018. The state's unemployment rate has remained below 4% for more than two years.

The department also says that the number of private-sector, nonfarm jobs was 10,300 higher than it was in May 2018, exceeding 1.16 million. The growth was 0.9%.

Companies providing support services for other businesses saw the biggest gain at 4.1%. The state added 100 private-sector nonfarm jobs from April to May.

Only 14 of the state's 105 counties had unemployment rates above 4 percent in May.

스포츠 / SPORTS

캔사스 체육회와 선수단 제20회 시애틀 미주한인 체육대회 참가

“더 높이 더 멀리 열정으로 하나되자.”는 슬로건 아래 미주한인동포 최대의 스포츠축제인 제 20회 전미주한인체육대회(미주체전)가 2019년 6월 21일부터 23일까지 2박3일동안 워싱턴주(Washington State) 중부에 위치한 시애틀(Seattle)에서 개최되었다.



6월 21일 오후 6시 페더럴웨이 고등학교에서 열린 개막식과 함께 시작된 미주체전에는 전국에서 모인 5,111명 선수들과 임원들이 스포츠로 하나가 되어 친선과 우의를 다졌다.



재미대한체육회에서는 이번 개막식 행사에서 특별히 안경호 재미대한체육회 명예회장에게 감사장을 전하여 공로패를 수상하였고 부상으로 평창 올림픽 때 사용한 성화봉을 증정하여 참석한 모든 사람들의 뜨거운 환호의 박수를 받았다.



이번 미주체전에는 안경호 캔사스 선수단장과 김대중 캔사스체육회장, 그리고 왕희철 캔사스팀 총감독과 함께 캔사스체육회 6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하여 기량을 펼쳤다.



캔사스체육회에서는 이번 미주체전 참가 기금모금을 위하여 지난 4월 28일 선교교회에서 기금마련 일일식당을 열었고, 많은 캔사스 한인동포들이 바쁜 와중에도 일일식당에 방문하여 식사를 하며 미주체전에 참가할 캔사스체육회와 선수단들을 응원해 주시고 힘을 실어 주었다.



김대중 캔사스 체육회장은 응원해 주신 캔사스 한인동포 여러분들 덕분에 캔사스선수들이 힘을 내어 큰 부상이나 사고없이 무사히 경기를 치를 수 있었다며 동포사회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제20회 시애틀 미주체전은 시애틀, 타코마, 페드럴웨이에서 시합이 분산 개최되었으며 캔사스체육회에서는 검도, 골프, 볼링, 수영, 육상, 축구, 테니스, 소프트볼 8종목에 선수들이 참가하였다.



미주체전은 1981년 LA에서 처음 개최된 이래 올해까지 38년의 역사를 지닌 명실상부한 미주 최대의 한인 스포츠 대 축제이다. 매 2년마다 홀수년도에 전국적인 규모로 개최되는 종합 경기 대회인 미주체전은, 땀의 결과로 이뤄낸 놀라운 성과를 통해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스포츠 경기를 통하여 미국 내 한인들의 민족적 단결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미주체전에서는 로스엔젤레스가 전체 1위, 텍사스주 달라스가 2위, 그리고 주최 도시인 워싱턴주는 3위를 기록하였다.



캔사스팀 선수단장: 안경호
체육회장: 김대중
캔사스팀 총감독: 왕희철
경기팀장: 축구-정기호, 테니스-문도영, 수영-김대연, 볼링-강주현, 육상-배진용, 소프트볼-데니스조, 골프-정운영

(수상 내역)

수영: 강미정, 김정빈, 김정훈, 김정원, 이재혁 은메달 4개, 동메달 4개

육상: 배태랑 - 800미터, 1500미터, 5K 마라톤 금메달 3개

육상: 배진용 - 투포환, 5K 마라톤 동메달 2개

골프: 제이미김 - 71타, 74타 일 반대대표팀 금메달 1개

(기사: 캔사스한인회 보도위원 안향미/ 사진: 캔사스체육회 제공)





WOODLAND DENIES HISTORY WITH US OPEN TITLE AT PEBBLE BEACH

By DOUG FERGUSON

PEBBLE BEACH, Calif.

In front of Gary Woodland was a 263-yard shot to the scariest green on any par 5 at Pebble Beach, especially with a U.S. Open on the line. Behind him by one shot on the leaderboard was Brooks Koepka, the most dangerous figure in major championship golf these days. The safe shot was to lay up on the 14th and take his chances with a wedge.

With an extra boost of confidence from his caddie, Woodland delivered the shot of his life with a 3-wood that narrowly cleared a bunker, settled on the edge of the green and set up a birdie that gave him the cushion he needed. The rest was pure theater — a 90-foot pitch off the 17th green he nearly holed, a 30-foot birdie putt on the final hole for a 2-under 69 and a three-shot victory that denied Koepka's bold bid to match a century-old record with a third straight U.S. Open. Woodland's pitch across the 17th green over a hump that checked and trickled to tap-in range effectively clinched it, taking its place with other big moments on the 17th green in the U.S. Open. Needing three putts to win,



Woodland finished in style. He raised both arms in the air to salute the crowd, turned toward the Pacific and slammed down his fist. Distance was no problem for Woodland on the 14th hole. He believes it allowed him to hit one just as good on the 17th. Woodland dropped the 5-iron from his hands when it sailed well to the right of the green with the pin 90 feet away over a hump. Up ahead on the par-5 18th, Koepka drilled a 3-iron just over the back of the green, leaving him a 50-foot chip for eagle to tie, with a birdie likely to do the trick considering what Woodland faced on the 17th. Koepka chipped to 10 feet and narrowly missed the birdie putt. Woodland, unable to hit putter and get anywhere near the hole, opted to pitch it with a 64-degree wedge. He clipped it perfectly just over the hump, and it checked about 12 feet from the hole and trickled by the pin to secure par, and effectively the U.S. Open.

Woodland played conserva-

tively down the 18th and made one last birdie that only mattered in the record book. That birdie put him at 13-under 271 and earned him \$2.25 million, the richest payoff in golf. With a marine layer blocking the sunshine, and no significant wind at Pebble Beach all week, 31 players finished under par.

Koepka started four shots behind in his bid to join Willie Anderson as the only players to go back-to-back-to-back in the toughest test in golf. He made up ground quickly with four birdies in five holes. He failed to get up-and-down from a bunker for birdie on the par-5 sixth, and missed a 6-foot birdie putt on the par-3 seventh. Still, he stayed within range, just like he wanted, knowing that anything could happen on the back nine of a U.S. Open.

More AP golf: <https://apnews.com/apf-Golf> and https://twitter.com/AP_Sports





CJ LIVECITY CORPORATION AND AEG TO JOINTLY PURSUE BUILDING KOREA'S FIRST WORLD CLASS ARENA

LOS ANGELES & SEOUL, SOUTH KOREA--(BUSINESS WIRE)--JUN 9, 2019--

CJ LiveCity Corporation, a subsidiary of CJ Group which owns the largest media and entertainment company in Korea spanning film, music, television and conventions, and AEG, the world's leading sports and live entertainment company, have signed an agreement to jointly pursue building a state-of-the-art 20,000-capacity arena in Metropolitan Seoul's Gyeonggi Province, Korea.

CJ LiveCity will include the Seoul Metropolitan Arena, as well as a studio complex, a K-culture themed entertainment district and waterfront park. With more than 20 million visitors projected annually, CJ LiveCity will become Korea's landmark touristic destination that will revitalize both the national economy and the northern Gyeonggi Province. CJ LiveCity is strategically located to attract K culture fans across Asia. The site is centrally positioned among five of Korea's largest cities with a combined population of over 150 million people. The GTX highspeed express train (scheduled to open in 2023) will connect CJ LiveCity to Gangnam District in only 20 minutes; a 40-minute drive from Seoul's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and a 20-minute drive from Gimpo International Airport.

Seoul Metropolitan Arena will be designed by a world-renowned architectural firm and will serve as the key landmark facility in CJ LiveCity. The arena will become Korea's largest and most advanced live performance venue for K-Pop, international artist tours, sports events and Hallyu content, and is poised to redefine the live entertainment experience in the country. The arena and CJ LiveCity will be the first of their kind destinations in Korea and will offer an 'indoor and outdoor' experience so that audiences in the arena and visitors to CJ LiveCity are able to collectively enjoy the performance together. The agreement marks AEG's entrance into the growing Korean live entertainment market and further expands the company's footprint in Asia. Once the arena opens, AEG will curate a top-quality program of international and domestic concert tours through its music division AEG Presents, one of the largest music companies in the world. AEG Presents has promoted world tours for artists including Ed Sheeran, Justin Bieber, Paul McCartney, Elton John, Shawn Mendes, Celine Dion, Khalid, Taylor Swift, The Rolling Stones and Katy Perry. CJ LiveCity's CEO Michael Kim said, "This collaboration combines CJ's long-standing

cultural business capabilities with AEG's venue development and operations expertise and its global live touring and promotions capacities. Seoul Metropolitan Arena, which will be designed by a leading architectural firm, is expected to be a competitive venue not only across Asia, but also globally due to performances of K-Pop as well as world-renowned artists."

Michael Kim continued, "Securing qualified content based on building a world-class facility is a key success factor for the Arena in CJ LiveCity. In this context, the collaboration with AEG, which is one of the world's leading venue operators and global live music companies, will be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for the arena's success."

AEG owns and has developed such renowned venues and entertainment districts as STAPLES Center and L.A. LIVE in Los Angeles, which is visited by more than 20 million guests annually; The O2 in London, which has hosted more than 50 million people since it opened; Mercedes-Benz Arena and Mercedes Platz in Berlin; and T-Mobile Arena in Las Vegas through a joint venture partnership with MGM Resorts International. These world-class destinations are among AEG's global network of over 150 venues, which includes more than

20 of the top-100 arenas.

AEG also developed China's premier entertainment destination Mercedes Benz Arena in Shanghai in partnership with the NBA and Oriental Pearl Group, and is currently developing two venues in Bangkok through a joint venture partnership with Thailand's leading retail developer, The Mall Group.

As part of its research and analysis for developing Seoul Metropolitan Arena, CJ visited several of the world's leading arenas and made the decision to pursue building the arena with AEG based on the company's extensive experience. AEG Asia's President and CEO Adam Wilkes said, "We believe that the combination of CJ LiveCity and the new Seoul Metropolitan Arena will revolutionize Korea and the region's entertainment landscape. Both AEG and CJ share a vision of Korea as a world-leading entertainment destination and we are thrilled to work with such an innovative leader. CJ has an in-depth understanding of the Korean and Asian markets and unparalleled experience in entertainment. We believe that Seoul Metropolitan Arena will become a must play destination for world tours and look forward to breaking new ground together."

RAKUTEN LAUNCHES RAKUTEN SPORTS: NEW LIVE STREAMING, VIDEO ON DEMAND SERVICE DELIVERS SPORTS CONTENT TO FANS WORLDWIDE

TOKYO--(BUSINESS WIRE)--Jun 11, 2019--

Rakuten, Inc., a global leader in internet services, today announced the launch of Rakuten Sports. This new live streaming and video on demand (VOD) sports entertainment platform provided by Rakuten will deliver sports content to a global audience.

Rakuten Sports provides viewers with Meiji Yasuda J1 League matches from the 2019 season both live and on demand. The service's content portfolio, currently centered on soccer, also features the original series Iniesta TV, which follows the international soccer star Andrés Iniesta who plays for the Rakuten Group's J.League soccer club, Vissel Kobe. Rakuten has partnered with Lagardère Sports, the international media rights distributor of Japan's professional football league, to distribute 2019 season J.League matches to fans in more than 140 countries and regions worldwide, excluding Japan and select regions. *1 The new service is designed to appeal to soccer fans in Vietnam, Singapore, Philippines, Indonesia, Malaysia, Cambodia, Myanmar, Laos and other countries in Southeast Asia, where the popularity of the sport is on the rise and the J.League's fan base is steadily growing.

"Rakuten believes in the power of sport to transcend language and cultural barriers – a power that connects people and creates communities," said Makoto Arima, Rakuten Group Executive Vice President, Chief Revenue Officer and President of Rakuten's Media & Sports Company. "We are delighted to deliver the joy of

sports to people around the world, which is why Rakuten has worked alongside our partners to bring a diverse lineup of sports initiatives to life. Rakuten Sports represents an important part of this mission. We hope to contribute to the continued growth of the J.League by sharing what the league has to offer with soccer fans around the world."

Masaaki Kimura, Senior Managing Director of the J.League (Japan Professional Football League) said, "It is our genuine pleasure to hear that Rakuten Sports will distribute Meiji Yasuda J1 League matches worldwide via their platform in the 2019 season. In addition to the international superstars like Andrés Iniesta and Fernando Torres playing in the league, we feel the growing global interest towards our league. We hope to have a positive synergy with Rakuten Sports and make the league become more attractive for all sports fans around the world to enjoy."

In addition to soccer, Rakuten Sports plans to add to its offerings by introducing basketball, table tennis and other sports in the future. Going forward, the sports entertainment platform also plans to introduce new user engagement capabilities that will allow global sports fans to interact with the content while communicating with other sports fans in new, innovative ways. Rakuten aims to contribute to the further empowerment of the global sports community by distributing sports-based content that appeals to fans around the world.

SUMMER NEW DRAMAS UPDATED

Level Up 레벨업

Directed by Kim Sang-woo-III (김상우)
Screenplay by Kim Dong-gyoo (김동규)
Cast Sung Hoon (성훈), Han Bo-reum (한보름), Danny Ahn (데니안), Baro (바로)
MBN | 2019/07/10~12 episodes - Wed, Thu
A romantic comedy drama in which Ahn Dan-te, a restructuring expert with a 100 percent recovery rate, and Sin Yeon-hwa struggle to release a new film that will save the bankrupt game company.

WATCHER 왓쳐

Directed by Ahn Gil-ho (안길호) Screenplay by Han Sang-woon (한상운)
Cast Han Suk-kyu (한석규), Seo Kang-joon (서강준), Kim Hyun-joo (김현주), Heo Sung-tae (허성태)
OCN | 2019/07/06~ Sat, Sun
A psychological thriller that delves into the reality of power. It follows the story of three men and women who join a special anti-corruption police investigation unit after their lives are shattered by a dramatic event.

Designated Survivor: 60 Days

60일, 지정생존자
Directed by Yoo Jong-seon (유종선) Screenplay by Kim Tae-hee-I (김태희)
Cast Ji Jin-hee (지진희), Lee Joon-hyuk (이준혁), Heo Joon-ho (허준호), Kang Han-na (강한나)
tvN | 2019/07/01~Mon, Tue
After the president, and the first twelve people in line to succeed him, dies during a bomb attack, an unwilling minister is tasked with running the country for 60 days.

Hotel Del Luna 호텔 델루나

Directed by Oh Choong-hwan (오충환)
Screenplay by Hong Jeong-eun (홍정은), Hong Mi-ran (홍미란)
Cast IU (아이유), Yeo Jin-goo (여진구), Jung Dong-hwan (정동환), Shin Jung-geun (신정근)
tvN | 2019/07/13~Sat, Sun
A fantasy drama about a hotel where spirits wander. The story revolves around an elite hotelier becoming the hotel's owner following a fateful incident with its beautiful, but ill-tempered manager, Jang Man-wol.

Justice 저스티스

Directed by Jo Woong (조웅) Screenplay by Jeong Chan-mi (정찬미)
Cast Choi Jin-hyuk (최진혁), Son Hyun-joo (손현주), Nana (나나), Park Sung-hoon (박성훈)
KBS | 2019/07/17~Wed, Thu
It follows Lee Tae-kyeong (Choi Jin-hyuk), a corrupt lawyer who has joined hands with the devil for revenge, Song Woo-yong (Son Hyun-joo), a man who chose to become evil for the sake of his family, and the involvement of the two in a case involving the serial disappearances of actresses

Doctor Detective 닥터 탐정

Directed by Park Joon-woo (박준우) Screenplay by Song Yoon-hee-I (송윤희)
Cast Park Jin-hee (박진희), Bong Tae-gyu (봉태규), Lee Ki-woo (이기우), Park Ji-young (박지영)
SBS | 2019/07/17~Wed, Thu
A social drama about resolving social injustice.

Rookie Historian Goo Hae-ryung

신입사관 구해령
Directed by Han Hyun-hee (한현희), Kang Il-soo (강일수) Screenplay by Kim Ho-soo (김호수)
Cast Shin Se-kyung (신세경), Cha Eun-woo (차은우), Lee Ji-hoon-I (이지훈), Park Ki-woong (박기웅)
MBC | 2019/07/17~Fri, Sat
In the 19th century, it was not acceptable for women to write historical records. However, Hae-ryung fights prejudice and encourages a change in the outdated system. Along with the fight of the female palace historians, the drama will tell of her romance with the prince who has a secret of his own.

Doctor John 의사요한

Directed by Jo Soo-won (조수원), Kim Young-hwan-I (김영환) Screenplay by Kim Ji-woon-II (김지운)
Cast Ji Sung (지성), Lee Se-young (이세영), Oh Seung-hyun (오승현), Lee Kyu-hyung (이규형)
SBS | 2019/07/26~32 episodes - Fri, Sat
"Pain Doctor Cha Yo-han" is a medical drama revolving around doctors of Pain Management.

Sing for Me 너의 노래를 들려줘

Directed by Lee Jeong-mi (이정미) Screenplay by Kim Min-joo-IV (김민주)
Cast Yeon Woo-jin (연우진), Kim Sejeong (김세정), Jiyeon (지연), Song Jae-rim (송재림)
KBS | 2019/07/29~32 episodes - Mon, Tue
A timpanist who lost all memories of the day of the murder, meets a man who can't sing and looks for the lost truth.

Welcome 2 Life 웰컴2라이프

Directed by Kim Geun-hong (김근홍) Screenplay by Yoo Hee-kyeong (유희경)
Cast Rain (비), Lim Ji-yeon (임지연), Kwak Si-yang (곽시양), Son Byung-ho (손병호)
MBC | 2019/07/29~ 32 episodes - Mon, Tue
The story is about a lawyer who helps the law-enforcement authorities enter a parallel world due to an unfortunate incident.

When the Devil Calls Your Name

악마가 너의 이름을 부를 때
Directed by Min Jin-gi (민진기) Screenplay by Go Nae-ri (고내리), Noh Hye-yeong (노혜영)
Cast Jung Kyung-ho (정경호), Park Sung-woong (박성웅), Lee Seol (이설), Lee El (이엘)
tvN | 2019/07/31~16 episodes - Wed, Thu
This is a comic fantasy drama about a star song writer named Harib selling his soul to the Devil and playing the game of his life with the end of his contract coming up.

PASTOR COLUMN

가장 행복한 여행

요 얼마 전에 미국의 한 여행사가 사람들에게 설문 조사를 한 적이 있었다. 여행사는 이렇게 물었다. “당신은 가장 행복하게 여행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대답했다. 그 대답 중에는 아주 낭만적인 여행, 기차여행, 크루즈 여행, 드라이브 하는 여행, 혹은 혼자하는 배낭여행이라고 답했다. 그런데 제 1위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이다. 즉 가장 행복한 여행은 정말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가는 여행이라고 대답했다. 그 이유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여행은 가고 오는 길이 아무리 멀고 험하고 어려워도 하나도 힘들지 않고 오히려 그 여행이 즐겁다는 것이다. 아니 오히려 여행길이 어렵고 힘들어도 가슴으로 정말 사랑하는 사람하고 가는 여행은 더 추억이 되고 더 즐겁고 행복하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간다면 기차여행을 하든 크루즈 여행을 하든 도보여행을 하든 단체여행을 하든 또는 어디를 가든 다 즐겁고 행복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하는 연인끼리 단 둘이 가는 여행을 꿀같이 달콤한 여행이라고 해서 밀월여행이라고 하고 허니문 트립(Honeymoon Trip)이라고 한다.

백번 맞는 말이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여행은 비행기 1등석이 아니라 3등석이어도 즐겁고 비싼 고급 호텔 음식이 아닌 값싼 햄버거를 먹어도 웃음꽃이 피고 행복하다. 또 최고급 리조트 호텔이 아니라 저가의 모텔이라도 즐겁다. 그러니까 여행은 어디로 가

느냐 보다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어디를 가든 행복하고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 수 있다. 그 사랑하는 사람이 가족이 될 수 있고 부부가 될 수도 있고 친한 친구도 될 수 있고 애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상식과 대화가 통하고 마음이 통하는 친구나 친지와 함께 가는 여행은 잊을 수 없는 진한 감동과 추억을 된다. 그런 행복한 여행은 지친 나에게 새로운 힘을 주고 상처받은 나에게 치유와 회복을 가져다 준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바람따라 구름가듯이 여행길을 떠날 필요가 있다.

여행이 주는 축복은 수없이 많다. 여행길을 나서기전에는 기대감과 흥분이 있고 여행하는 과정에서 얻은 소중한 체험이 있고 또 여행을 마치고 나서는 그 체험을 연인이나 친지들과 함께 나누는 행복감이 있다. 그러나 나와 어울리지 않는 사람, 나와 안맞는 사람과 여행을 가면 아무리 좋은 호텔에서 비싼 음식을 먹고 비행기 1등석을 타고 호화로운 유람선을 타고 아름다운 관광지를 가도 고통과 불편의 연속이 되고 스트레스만 쌓인다.

인생은 여행하는 것과 같다. 여행은 출발점이 있고 여행과정이 있고 또 목적지가 있다. 우리 인생도 삶의 출발점이 있고 삶의 과정이 있고 마지막 종착역이 있다. 우리 각자가 생로병사의 길을 걷다가 어느날 어느 순간에 인생 여행을 마치게 된다. 어떤 사람은 그 여행길이 애석하게도 짧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긴 사람이 있다. 어떻든 인생 여행을 마치는 순간에 우리 각자는 영원한 목적지로 들어간다. 어떤 사람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간다. 영원

한 운명이 갈리게 된다.

여행을 하다보면 때때로 많은 비바람과 눈폭풍과 예기치 않은 장애물과 외로움이 있다. 그리고 험준한 산과 앞길을 가로막는 강과 망망한 바다를 만나기도 하고 뜨거운 사막을 통과하기도 한다. 그리고 저 황량한 광야길을 홀로 걸어갈 때도 있다. 때로는 길을 잃고 정처없이 헤메기도 한다. 이때 필요한 사람은 여행 가이드이고 동행자인 여행 파트너다. 노련하고 경험많은 가이드는 길을 잘 알기에 여행객들을 안전하게 행복하게 잘 인도한다.

우리 인생 여행길에도 그런 완전한 가이드가 있어야 한다. 그 가이드와 함께 여행길을 나서야 한다. 그 완전한 가이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은 내 인생길을 불보듯 훤히 알고 계신다. 그분은 내가 인생 여행을 시작하여 마치는 순간까지 나와 함께하다가 나를 저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신다. 연인은 변하고 친구도 떠나고 배우자도 나를 버릴 수 있지만 예수님은 내 인생 여행길에 나를 결코 떠나지 않는다. 그는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이 세상 가이드나 연인은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만 나와 함께 갈 수 있다. 그들은 영원히 나와 함께 갈 수는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길에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같이 가고 내 인생길을 인도하신다. 나를 홀로 내버려두지 않으신다. 그래서 그분 없이 인생 여행길을 나선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고 불안하다.

그는 내 인생 여행길에 가이드가 되시고 또 최고의 연인이 되신다. 그는 나를 지독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완전한 사랑, 갚을 수 없는 사랑, 죽음보다 강한 사랑, 끝까지 함께 하는 사랑, 포기

하지 않는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저항할 수 없는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이시다. 그 예수님이 나의 인생길에 동행한다면 가장 행복하고 축복되고 안전한 여행이 될 것이다. 그 분을 모시고 그분과 함께하는 인생 여행길은 마냥 흥겹고 행복하고 안전하다. 그는 나의 인생 여행길에 내가 홀로 고독할때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가 힘들어 지칠 때 나를 업고 가시고 내가 울때에 눈물을 닦아 주신다. 그 어느 누가 이렇게 나와 영원히 함께 갈 수 있는가?

가수 노사연이 부른 바램이라는 노래에 이런 가사가 있다.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준다면 나는 사막길을 걷는다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지치고 힘든 인생길에 누군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고 하며 동행해 준다면 우리 인생길이 사막과 광야를 건넌다해도 꽃길처럼 느껴질 것이다. 그 누군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인생여정이 행복하고 목적지도 천국이라면 최고의 인생을 사는 것이고 목적지도 지옥이고 인생여정도 불행하다면 최저의 인생을 사는 것이다. 현재 당신은 인생 여행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가 아니면 고통스럽고 힘들게만 느껴지는가?

이땅의 여행은 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고 또 갈 수도 있지만 우리 인생 여행은 한번 떠나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것이다. 이 얼마나 엄숙한 진리인가? 그래서 한번 밖에 없는 우리 인생여행길이 얼마나 소중한가? 더구나 우리 각자는 한번도 가보지 않은 인생 여행길을 날마다 가고 있다. 그래서 기대감도 있지만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도 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내 인생 여행의 가이드와 연인으로 모시고 가면 그는 올바른 방향을 알려주신다. 내 인생 여정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이 체험을 꼭 해보기를 바란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다. “인생이 성공하고 행복해지려면 3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 그 3여자는 자기를 낳아 길러준 엄마와 자기와 평생을 함께하는 마누라와 GPS에서 길과 방향을 알려주는 여자”라는 것이다. 이 또한 맞는 말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한

분을 더 알려드린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분은 내 인생의 방향을 수시로 일러주신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얼마나 빨리 달리느냐보다 어느 방향으로 나는 가고 있는가가 중요하다. 우리는 종종 인생 여행길에서 방향을 잃고 헤멜 때가 있다. 그러나 영원한 안내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가면 방향을 잃지 않고 행복한 여행을 할 수 있다. 당신의 인생 여행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이제 바야흐로 본격적인 휴가철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가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국내 국립공원이나 해외명승지나 특별히 여행 버킷 리스트에 올려진 곳을 찾아 가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여행에는 용기와 결단과 준비와 체력과 목적지를 설정해야 한다. 여행에는 모험을 각오해야 한다. 새로운 환경에 대한 도전정신

이 있어야 한다. 할 수만 있으면 여행을 떠나보자. 꼭 멀리까지 갈 필요는 없다. 어디든 가서 하늘을 한없이 바라보고 들꽃을 만져보고 쏟아지는 별빛에 취해 보고 바람결에 머리를 휘날려보자. 그리고 미친듯이 웃어보자. 그리고 걸어보자. 아름다운 일탈을 시행해보자. 그러면 무엇인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교훈을 체득하게 될 것이다. 잊을 수 없는 추억과 감동의 여행이 되기를 소망한다. 예수님과 함께 최고로 행복한 여행이 되기를 바란다.

이제 우리 인생 여행 마치는 날 나는 행복했노라고 나는 이 세상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과 함께 소풍을 즐겁게 잘 마쳤다고 노래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야 하지 않겠는가?

현재 당신의 인생 여행은 행복한 여행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힘들

고 불행한 여행을 하고 있는가?

토피카 한인침례교회
담임목사: 임성택 (Seoung T. Lim)
735 SW Oakley Ave.
Topeka 66606
785-235-8738/859-556-3555(c)
samuel3280@gmail.com

캔사스 시티 종교단체 주소록

캔사스 한인천주교회
주임신부: 박종수 펠릭스
9130 Pflumm Rd., Lenexa
korean1481@gmail.com
http://www.kckcatholic.org

105 SE 421st Rd.
Warrensburg 64093
660-429-6511 / 660-864-3638 (c)
krwpreach@hanmail.net
www.cmkbc.org

레반월스감리교회
담임목사: 최진호 (Jin Ho Choi)
1526 10th Ave.
Leavenworth 66048
913-682-7007/913-705-0604(c)
vic223@naver.com

베델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아브라함
(Abraham Kim)
9595 W95th St, OP
913-617-3987/913-940-9188(c)
Shalom4abraham@yahoo.com

레반월스순복음교회
담임목사: 김한규 (Hankyu Kim)
1000 N 10th St.
Leavenworth 66048
913-682-3766
mauifullgospel@yahoo.com

캔사스뉴비전교회
Kansas New Vision Church of the Nazarene
담임목사: 박근영
(Rev. GeunYoung Park)
8200 W. 96th Street, OP 66212
816-315-4174
knvc2008@gmail.com
www.ksnvc.com
facebook.com/KansasNewVisionChurchoftheNazarene

로랜스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성환
445 Lyon St., Lawrence 66044
443-910-2732(c)
www.lawrencechurch.org

캔사스 뉴헤이븐 SDA 한인교회
Kansas New Haven Church
담임목사: 정한철 (Harold Kim)
8714 Antioch Rd, OP 66212
전화: 913-730-0190
facebook.com/kcsdanewhaven

미주리중앙침례교회
Central Missouri Baptist Church
담임목사: 김래원
(Raymond Raewon Kim)

캔사스선교교회
Kansas Mission Church
담임목사: Rev. Yohan Lee 이요한
김예반 (Evan Kim, 영어부)
8841 Glenwood St., OP 66212
913-648-9191/ 339-440-2696(c)
www.kansasmission.org
facebook.com/KMCCCHURCH

캔사스순복음교회
담임목사: 김경민
1424 S. 55th St. KCK
714-313-6259
kansasfgc@gmail.com
www.kcmusa.org

캔사스안디옥나사렛교회
담임목사: 이은철 (Eun C. Lee)
2737 S. 42nd St., KCK 66106
913-831-6779 / 913-206-6631(c)
Tim0921@gmail.com
http://kansasantioch.org

캔사스시티임마누엘감리교회
담임목사: 허장 (Jang Hur)
4900 Antioch Rd., Merriam 66203
913-631-1004 / 913-206-6880(c)
hjang212hanmail.net

캔사스시티한인침례교회
Kansas City Korean Baptist

Church
담임목사: Insung Jeon (전 인 성)
3817 N. Wayne Ave, KCMO 64116
816-452-1906

캔사스영락교회
담임목사: 이춘석 (Chun Suk Lee)
3000 S 55th St, KCK 66106
913-265-9030
myloveisrael@gmail.com
www.ksyoungnak.org

캔사스우리교회
담임목사: 장현희 (Hyunhee Chang)
10100 Metcalf Ave. OP 66212
913-299-7246
kwoorich@gmail.com
www.kwoori.org

캔사스 한인 중앙 연합감리교회
담임목사: 김다위 (Dawe Kim)
9400 Nall Ave, OP 66207
913-649-2488/816-304-2113(c)
centralkoreanchurch@gmail.com
facebook.com/ckumc

캔사스제일장로교회
담임목사: 신수철 (Soo C. Shin)
4505 Gibbs Rd., KCK 66106
913-369-5959/816-560-8619
sooshin@msn.com

캔사스제일침례교회
담임목사: 하병진 (Byung J, Ha)
15902 Midland Dr.
Shawnee 66203
913-962-9125/913-406-0586(c)
habyongjin@yahoo.com

캔사스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강일경 (Kyle Y. Kang)
2002 51st St., KCK 66106
913-236-7636/ 13-653-7077(c)/
(213) 505-7434(Director)
kpckan@gmail.com
www.kpck.org

토피카 한인침례교회
담임목사: 임성택 (Seoung T. Lim)
735 SW Oakley Ave.
Topeka 66606
785-235-8738/859-556-3555(c)
samuel3280@gmail.com

캔사스 새생명 교회
담임목사: 최안성 (Ansung Choe)
2611 S. 31th St
Kansas City, KS 66106
816-800-1985(c)/504-875-0737
choeansung@hotmail.com
kansasnewlifechurch.org

무료 광고란은 모든 독자들에게서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장터입니다. 생일, 돌잔치, 부고, 중고 물건 매매 등 모든 알리를 편하게 알려주시면 무료 한줄광고로 귀하께 실어드립니다. 편하게 애용해주시고 보내실 곳은 kim@ckkoreanjournal.com 입니다.

FREE classified is a FREE marketplace for all KCKJ readers. Please send your notices for birthdays, anniversaries, obituaries, used items for sale, etc. Submit your announcements via email to kim@ckkoreanjournal.com

구인,구직 / JOBS / Help Wanted

SUSHI KO & ROK BBQ 에서 헤드서버와 한식주방장님 구합니다. 그리고 적은금액 투자하고 하시고 일하실분 (일식,한식쉐프,메니저,써버 경험 있는분) GOOD PAY, GOOD TIP 785-991-0081

Part Time/Full Time position at Beauty Supply Store 뷰티써플라이 스토어에서 파트타임 또는 풀타임으로 일할 분을 찾습니다. Located in Independence or Lee Summit 근무지: 미조리 인디펜던스 또는 리써밋 연락처: 913-488-8239

New Korean Asian Restaurant in Downtonwn/Crossroads hiring servers! Mila 720.366.8925

SUSHI KO LAWRENCE 에서 서버 하실분 구합니다 GOOD PAY, GOOD TIP 785-991-0081

가사도우미 구함 오버랜드 파크 남쪽, 135번가와 메카프 애브뉴 근처 일주일에 두 번 4시-7시 사이에 간단한 저녁 식사 준비 도와주실 가사도우미 구합니다. 연락처 301-395-5868

Gangnam Korean Restaurant에

서 서버 하실분을 구합니다. Full time/Part time (무/경력자 환영) 913-383-8888 ask for Chase.

Maru Sushi 에서 서버 하실분을 구합니다. 913-258-5879

의류수선 경력자 구합니다. North Kansas City (I-29, NW 64th St)에 위치한 Alteration shop 에서 일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816-584-0845

VIVA FASHION 밝고 긍정적인 성격으로 성실하게 오랫동안 함께 하실분을 모집합니다. KANSAS CITY / OLATHE / INDEPENDENCE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주세요. (ALEX or JINNY 913 - 287 - 8008)

에서 맡아서 일할 사람을 찾읍니다 Hiring for immediate position. Call/전화하십시오 816 - 861 - 2223 Dollar and TNS Beauty (2928 Prospect Ave. KC, MO)

캔사스 경로대학에서 댄스, 체조, 취미활동, 건강 강의 등으로 재능을 기부해주시는 분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913-236-7636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We are an authorized METROPCS dealer in KCMO Area. We have over 20 STORES. I am currently looking for Assistant Operation Managers/ Store Managers/ Sales Rep. Need to be able to speak English. Also, looking for anyone that would like to open a MetroPCS STORE, or purchase opened STORES. 우리는 KCMO 지역의 METROPCS 공인 대리점입니다. 우리는 20 개 이상의 점포가 있습니다. 현재 Assistant Operation Managers / 매장 관리자 / 영업 담당자를 찾고 있습니다.영어를 할 수 있어야합니다. 또한, Metro PCS 매장을 열거 나 열 저장소를 구입하고자하는 사람을 찾고. Ben Kim, General Manager - Tomorrow Mobile Cell - 512.906.6106 1622 Central Ave., Kansas City, KS 66102

Janitorial Services Company. 사무직0명, 매니저0명. 영어 가능자. 트레이닝 해드립니다, 일단 전화로 상담해 보세요. Call (913)980-3043

eMaids of KANSAS CITY HAS HOME/OFFICE CLEANER POSITIONS OPEN! eMaids of Kansas City, is looking for: honest, friendly, motivated and experienced individuals for Home/Office Cleaning. Applicants don't need to be fluent in English, but we prefer that they speak some English so that our clients can communicate with our team. We pay between \$11.00 - \$15.00 per hour (Plus Tips) after training. Plus we pay weekly. Must present valid ID / Social Security Card. Must pass a background check and have reliable transportation. Contact us by emailing eMaidsJOBSKC@gmail.com or calling 913-871-5755.

Help Wanted Star Beauty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고 열정있으신분 찾고 있습니다. 같이 일하고 싶거나 관심 있으시면 여기로 연락주세요. (Full Time/Part-Time position available) 816-931-4747 ask for John or Josh

Polished Nails and Wax: Looking for full and part time technicians for nails, waxing, and facials: experience is a plus. Call 913.681.6245 and ask for Stephanie

J & L Liquor store 에서 일할분을 찾습니다 언제든지 가게에 들리시든지 전화 또는 text message 로 연락주세요 10406 Metcalf Ave Overland Park. KS (913)406-8956

업소 매매 / BUSINESS FOR SALE

Selling Tailor Shop Leawood, Kansas Renown Tailor shop. Opened for 20 + years. Contact: (913) 451-2727

Sell Japanese Restaurant

Location: Lawrence KS 2500SqF Equipment + Inventory 대학가, 건강상 이유로 급매 Cell NO: 213-210-4560

RETAIL STORE FOR RENT 10413&10415 BLUE RIDGE BLVD KC, MO 64134 MOVE IN READY! FOR MORE INFORMATION CALL JIN KIM 860-478-7035

Victoria's Nails and Spa Shawnee, Kansas Regular and very friendly clients - 90% tip in cash * 5 Pedicures chairs * 6 Manicures tables * 1 Wax room Please contact call/text: Lily (816)809-6120

Cafe for sale locate at Overland Park office building. Good location and business, well maintained. Owner need to retire and move please call 913 963 2889 for more information. 좋은 입지 조건을 갖춘, 현재 성업중인 오버랜드 파크 오피스 건물에 위치한 카페를 개인적인 사정 (은퇴) 으로 매매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Tel: 913-963-2889

Dry cleaners in metro Kansas City area. Excellent set of equipment plus profitable route with lots of growth potential. \$250,000 for everything. Excellent lease available. Call Tom at FNBC 816 799 0911

세탁공장 매매 (dry cleaning plant for sale) Location (위치): Olathe KS Cal or Text: (913)549-0036 가격: \$150,000.00

Market

Looking for a Jindo dog that we can adopt. You can text me or call me 816-786-0031. Gwendolyn Meyer

서비스 / SERVICES

Jo's Auto Body Shop
We buy used and junk cars and trucks! Mon-Sat 9am-7pm, 3333 Stadium Dr. KC, MO 64128, 816-923-0330 / 816-686-4046
jeongpanjo@gmail.com Pan Joe Jeong

Prepare & Enrich 예비부부 결혼 전 교육 (Premarital Education by English/Korean)
주제: 예비부부의 마음 준비(Mind Preparation for A Happier Marital Life)

대상: 결혼을 앞두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 서로의 마음을 함께 준비 하길 원하는 예비부부 (Any couple who want to be mentally well prepared for their marriage)
시간: 매주 1회 1시간씩 (기간: 최대 12주) Weekly for 12 weeks at most.

인도: 미드웨스턴 상담학과 교수 (A seminary professor of counseling)

장소: 미드웨스턴신학대학원 코엔&마이어 센터 (Kohen & Myers Center, Midwestern Seminary)
문의: 816-414-3830 (낮시간 통화/부재시 음성 메시지 녹음)

부모 씨포트 그룹(Support Group)*

주제: 자녀 교육 및 양육
대상: 부모로서 자녀 교육과 양육에 관련한 고민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자녀 연령별로 모임)

시간: 매주 1회 1시간씩 (기간: 12주)
인도: 미드웨스턴 상담학과 교수

장소: 미드웨스턴신학대학원 코엔&마이어 센터
문의: 816-414-3830 (낮시간 통화/부재시 음성 메시지 녹음)

*씨포트 그룹이란 5명 정도의 소그룹으로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이 함께 편안한 대화를 나눔으로써 서로에게 정서적인 힘이 되어주는 모임입니다.

갱년기 씨포트 그룹(Support Group)*

주제: 갱년기 관련 감정 변화
대상: 갱년기 관련 감정 변화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성별 따로 모임)

시간: 매주 1회 1시간씩 (기간: 12주)
인도: 미드웨스턴 상담학과 교수

장소: 미드웨스턴신학대학원 코엔&마이어 센터
문의: 816-414-3830 (낮시간 통화/부재시 음성 메시지 녹음)

*씨포트 그룹이란 5명 정도의 소그룹으로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이 함께 편안한 대화를 나눔으로써 서로에게 정서적인 힘이 되어주는 모임입니다.

하숙 / BOARDING

캔사스 민박 및 하숙-방5개, 화장실 3개, 거실, 페미리룸, 다이닝룸이 있으며 넓은 뒷마당이 있습니다.
연락처: 이메일 10sweetpotato24@gmail.com

학원 / INSTRUCTORS

캔사스시티 한국학교 Kansas City Korean Language Institute
8841 Glenwood St. Overland Park, KS 66212 캔사스 선교교회 선교관내 교장: 이명희

Principle: Myounghee Lee
이메일: leesaltkr73@gmail.com
전화번호: 816-469-8110

쿠몬 학원 Kumon Academy
대상: 3살 부터 18 세까지 Ages: 3-18

과목: 영어 및 수학

Subjects: English & Math

* 학생 자신이 공부하는 방법을 터득하며 자신감을 동시에 증진시켜 줌. Students learn how to study and improve learning skills at the same time enhance self-confidence.

* 세계에서 가장 큰 과외학습학원 (현재 4000개 학원에서 삼십만명의 수강생이 등록. The biggest extra-curricular learning academy in the world (30 million students are currently registered at the 4000 Academies).

* 무료 diagnostic test 및 무료 오리엔테이션 Free Diagnostic tests and complementary orientation.

*전화 913 897-1111

New Art Class 미술 수업안내

pre-k~ 12th, 성인반 모집
다년간 입시지도 및 대학강의 경력의 박

사출신 선생님과 전문 일러스트레이터 작가 선생님의 체계적인 미술수업

상담문의
816-646-1376/816-294-4283
artstudioianusa@gmail.com

Golf 개인교습 : 김준배 PGA 전문 골프 코치(PGA certified instructor)-오버랜드 파크와 샌앤드루 골프장의 수석 코치, 캔사스(Midwest PGA Section)의 유일한 PGA 인증 전문 골프코치.(개인교습문의 913-558-7997)

Golf Private Lesson: Mr.JB KIM.
*US KID TOP 50 Teacher Award/TPI Golf Mechanic LEVEL 2 Certified Teacher www.golfop.com, jbkkgolf@gmail.com, 913-897-3809, 913-558-7997

NLI에서 "Study Help" 프로그램은 운영합니다. 초등/중등/고등학교 학생들의 학교숙제를 돕고, 영어학습(Reading, Speaking, Listening, Writing)을 도와드립니다. (문의: 913-449-2233)

NLI에서 언어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중국어, 인도어, 스페인어, 독일어, 포르투갈어(Chinese, Hindi, Spanish, German, Portuguese)를 가르칩니다. (문의: 913-449-2233)

NLI에서 교과목 과외합니다. Math, Geometry, Algebra, Calculus, Science, Chemistry, Physics, Biology
문의: 913-449-2233

사회 / COMMUNITY

한인단체장 목록 회장 안경호
캔사스 시티 한인회
Korean-American Society of G.K.C. 913-486-5836
7800 Shawnee Mission Pkwy Mission, KS 66202

캔사스 상록회 (회장 정영로)
Korean Senior Citizen Society
6800 Alden St, Shawnee KS 816-351-9045

캔사스 한인 상공 회의소 (회장 공석)
916 Minnesota Ave. KC, KS

캔사스시티 한국학교 Kansas City Korean Language Institute
8841 Glenwood St. Overland Park, KS 66212 캔사스 선교교회 선교관내 교장: 이명희

KCKJ 알림

* KCKJ와 함께 광고해주세요.

- 귀한 캔사스 한인 들의 업소를 특별가로
광고해 드립니다.

- 문의 913-802-2005 ,

kim@kckoreanjournal.com



원고 모집
원고를 모집합니다. 새롭게 태어난 kckj는 한인 여러분의 소리를 적극적으로 담고자합니다. 다양한 분야에 관한 여러분의 글들을 500단어 내외로 자유롭게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투고를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면상 내용과 길이는 편집될 수 있습니다.)

kim@kckoreanjournal.com 로 제출해주세요

Essay Submission

Do you have a talent for writing? KCKJ is accepting essays (about 500 words) from our readers. (We reserve right to edit) Please submit to kim@kckoreanjournal.com

Principle: Myounghee Lee
이메일: leesaltkr73@gmail.com
전화번호: 816-469-8110

캔사스 시티 목회자 협의회
(회장 이은철 목사)
2002 S 51st St. KC, KS 66106
913-653-7077
Kpckan@gmail.com

캔사스 한인 체육회 (회장 김대중)
Korean American Sports Council of Kansas 913-205-0232
djkimtkd@gmail.com

캔사스시티연합성가단
Korean Choir of the Greater Kansas City

캔사스 한국 문화회관 건립 협회
8409 W. 129th Ter
Overland Park, KS 66213

캔사스 장로 성가단
(단장: 김영렬 장로) 913-593-7776
(총무: 배규태 장로) 816-333-128



장영준 종합치과

STATE AVENUE DENTAL OFFICE

YOUNGJUNE CHANG, DDS

UMKC 생물학과 석사
KU 식물학과 박사
UMKC 치과대학 치의학과 박사
DEKA CO2 Laser 과장 수료
Dentsply Implant System 수료
Hiossen (한국의 Osstem) Implant System 수료
FastBraces System 수료



www.kcfastbraces.com
fastbraceskansascity.com

“20년 이상 경력의 실력있는 의사에게
여러분의 치아를 맡기세요.
편안하고 믿을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치료를 한 곳에서!

FastBraces (빠른 교정)



- 거의 2년 걸리는 예전 방식의 교정기간을 약 75% 짧게 5개월 정도로 단축
- 과학과 오랜 연구로 증명된 방법으로 뿌리 손상 없이 교정
- 거의 반가격의 저렴한 교정비
- 단, 환자의 치열상태에 따라 인비절라인 (Invisalign)도 병행 교정

임플란트



- 고가/첨단 치과 시설과 기술
 1. 3D Scan X-ray기계를 갖추어 추측이 아닌 정확한 사전 구상으로 실수를 방지
 2. CO2 Laser로 잇몸을 불필요하게 많이 절개하지 않아, 시술 통증과 출혈이 거의 없으며 임플란트 시술 후 무감염/무통증 상태로 회복이 빠름
- 품질 높은 한국의 오스템(Hiossen) 정품을 대량 구입/비치해 좋은 임플란트 제품을 저렴하게 제공
- 3D X-ray 및 상담 무료

일반 치과진료



- 유아부터 어른까지 연령에 관계없이
- 일반 진료과목인 충치치료, 크라운, 브리지, 틀니, 쉬운 발치, 미백치료부터
- 전문적 기술을 요하는 사랑니 발치, 소아 치과, 신경치료, 임플란트 시술, 브래킷교정 등등 까지
- 저희 치과에서 "꼼꼼하게" "종합적으로" 치료해드립니다.
- 각종 보험과 메디케이드 받음

첨단시설

1. 3D Scan X-ray: 구강암 조기발견, 안전한 사랑니 발치, 임플란트 시술, 과학적인 교정
2. Digital X-rays: 90% 정도 방사선 노출 감소
3. CO2 Laser Machine: 저통증, 저출혈, 무감염, 빠른 회복
4. Intra-Oral Cameras (내구강 사진기): 직접 실제 치료상황을 볼수 있어서 빠른 이해

가격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913-299-8554



진료시간

Mon-Fri 8am-5pm
Sat-Sun Emergency Only



주소

6708 State Avenue
Kansas City, KS
66102



stateavenuedentaloffice.com



stateavenuedentaloffice

무보험자 혜택

다른 치과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할인 혜택을 드리기 일단 오서 보시라니까요!

